

남가주교협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 드려

변영익 회장 “1350여 모든 한인교회 아우르는 교협될 것” 약속



신임회장 변영익 목사(왼쪽)와 전임회장 민중기 목사(오른쪽)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가 11일 오후 4시에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에서 열렸다.

42대 교협 임원은 회장 변영익 목사, 수석부회장 진유철 목사, 부회장 강용순 목사, 박성규 목사, 박성규 목사, 박홍우 목사, 임규서 목사, 이정현 목사, 정우성 목사, 임혜빈 회장, 총무 박세현 목사, 부총무 심진구 목사, 이영우 목사, 협동총무 남철우 목사, 백낙균 목사, 서기 정종일 목사, 부서기 차권희 목사, 회계 홍성관 목사, 부회계 이만희 목사, 감사 정요한 목사, 배영수 장로, 사무국장 양정선 목사, 이

사회 이사장 서영석 장로 등으로 구성돼 2012년 남가주 교계를 섬기게 된다.

감사예배는 사회에 진유철 목사, 기도예배는 사회에 진유철 목사, 기도에 이정현 목사, 특별찬양에 오페라 켈리포니아 소년소녀합창단, 성경봉독에 임규서 목사, 찬양에 벨엘장로교회 찬양대, 설교에 김세운 박사(풀러신학교 교수), 특별헌금송에 목사장로 부부찬양단, 이임인사에 민중기 목사, 취임인사에 변영익 목사, 축하영상에 김자연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황수원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 47대 총회장), 축사에 김영대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 엄영민

목사(OC 교협회장), 송정명 목사(미주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신연성 총영사(LA총영사), 축하찬양에 글로벌 메시아 여성합창단, 기념패 전달에 김사무엘 목사(증경회장), 회장단 소개에 변영익 목사, 이사회 소개에 서영석 장로, 광고에 박세현 목사, 축도에 김도석 목사(증경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마5:13-16)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세운 박사는 “올해 남가주교협이 예수님 말씀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길 바란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돌려하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

면 정의가 드러나고 화평케 되고 인권이 정진될 것이다. 먼저 소금이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남가주 교회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장 취임인사에서 변영익 목사는 “42대 교협 회장이 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생각한다. 1년이 긴 시간인데 최선을 다해 교협을 섬기려고 한다”며 “첫째로 교회들에 도움이 되는 교협이 될 것이다. 둘째로 1350여개 남가주 교회가 모두 함께하는 교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셋째로 교포사회와 함께하는 교협이 될 것이다.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축사를 전한 목회자들은 “남가주교협 회장에 취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함께 해서 남가주 교회들에 부흥과 성장이 있길 소망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임인사를 전한 민중기 목사는 “임기를 잘 마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태껏 남가주교협을 위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가주교협은 이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40년사>를 발간했다. 토마스 맹 기자

쌀 나눔 운동으로 사랑 베푸는 한인교계



미주 사랑의쌀나눔운동의 두 번째 성금전달식이 7일 열렸다.

한인사회와 교계가 연합해 열리는 ‘미주 사랑의쌀나눔운동’ 임원 기자회견과 두 번째 성금전달식이 7일 오전 한인타운 내 한 호텔에서 열렸다.

앞으로 LA총영사관에서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750포, 라스베가스 그린랜드 마켓에서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200포, 미주평안교회에서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00포를 배부하는 등 2012년 1월 28일까지 지정배부처 교회에서 배부가 진행된다.

한편, 후원모금운동의 일환으로 사랑의 쌀 메시아 찬양예배가 16일 오후 7시에 웨스트힐장로교회, 17일 오후 7시에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18일 오후 7시에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리며, 각각 쌀 600포씩 참석자들에게 배부가 된다.

사랑의 쌀 지원 예약: 미주성서화운동본부 213-384-5232
후원금 체크 발송: (Pay to) Holy City-사랑의 쌀 (505 S. Virgil Ave. #160 LA, CA90020)
토마스 맹 기자

5개 남가주 공흥사역 단체, 연합 송년모임 가져

남가주에서 활동하는 한인 공흥사역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합 송년모임을 가졌다.



11일 오후 6시 포감사선교교회(담임 최정욱 목사)에 모인 남가주말선교단(대표 이영선 단장), 나눔선교회(대표 한영호 목사), 사랑선교회(대표 노혜미야 공 선교사), 종려교회(담임 전성도 전도사), 남가주농악교회(담임 강상의 목사) 등 5개 단체는 연합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위로하며 교제를 하는 등 새해를 앞두고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가주에서 활동하는 한인 공흥사역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합 송년모임을 가졌다.

박기성 기자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가 맡은 대형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재판결과가 달라집니다.

\$3천9백만불 CHP 경찰 전신 마비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213-386-5500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현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is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ASE, DAEWOO, SMOG CHECK, TSB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위임식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는 1974년 3월 15일, 2623 S. Ellendale Pl. Los Angeles에 위치했던 고 김기홍 목사의 가정에서 7명이 모여 첫 주일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88년 1월 10일, 4002 Verdugo Rd. Los Angeles에 위치한 현 성전을 구입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당회장/장정실교목사”로 류준영 목사가 섬기고 있으며, 오는 12월 18일 위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비전서

“교회의 유일한 머릿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은혜의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며 목회자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 거룩한 천국 백성들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설교와 말씀을 배우는 가르침에 충실하고, 성령을 의뢰하며, 세상 안에서 또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목회를 통하여 파송 받은 제자로서 예수님 계명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

목사의 리더십

1. 하나님 말씀 중심의 리더십
2. 공화/사랑/섬김의 리더십
3. 복음전파를 위한 리더십

이와 같은 리더십을 통해 앞으로 본 교회를 하나님 은혜의 복음 위에 새롭게 세우고, 온 교우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 간다.

예배 및 성경공부

1. 예배안내:
주일 대 예배 (매주 주일, 오전 11시)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새벽예배 (화-금요일, 오전 6시)
토요일, 오전 7시)
2. 성경공부 (매주 주일, 오후 1시)

류준영 목사 소개

플러신학대학원, 박사 과정
플러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부목사

일시: 2011년 12월 18일 주일 오후 4시
장소: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Glend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4002 Verdugo Road Los Angeles, CA 90065
문의전화: 323-254-4012

중부교회협의회, 회장에 박소건 목사 선출

“100여개 중부지역 교회 더욱 더 세워 갈 것”



중부교회협의회 총회 라팔마연합감리교회에서 5일 열렸다.

2011년도 중부교회협의회 총회가 라팔마연합감리교회(김도민 목사)에서 5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이날 총

사회, 융장영 목사(회장)의 말씀, 김영대 목사(중경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날 말씀을 전한 융장영 목사는 “성령께서 중부 지역에 우리를 사역하게 하셨고 중부교회협의회로 우리를 묶어 주셨다”며 “잔잔하게 흐르는 물줄기처럼 보이듯 안보이듯 지역교회를 섬기고 왔던 중부지역 교회의 전통을 계속해서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

2부 미디어 세미나에서는 한솔사이언트 시니어 서비스의 대표인 황선철 장로가 중부지역 목회자를 위해 최근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에 실재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디어에 관련, 유익한 내용을

전달했다.

3부 정기총회에서는 신임회장에 박소건 목사(새순커뮤니티교회), 부회장에 박상열 목사(반석교회), 황에스터 목사(미주 송현성결교회), 총무에 전동은 목사(청소년비전센터), 부총무에 노광조 목사(감사한인교회), 서기에 차권희 목사(사이프레스삼성장로교회), 회계에 김순옥 목사(스텐튼감리교회)를 선출했다. 박소건 목사는 “부족하지만 100여개의 중부지역 교회를 더욱 더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중부교협은 부활절연합예배, 광복절 성가찬양제, 연합부흥회도 교회연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인규 기자

실버아카데미 300명 모인 가운데 송년음악회

80세 넘는 아카데미 가족들 찬양과 연주



실버아카데미의 송년음악회가 10일 Saint Anselm Episcopal Church에서 열렸다.

실버아카데미(원장 박소건 목사)의 송년음악회가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10일 오후 3시에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Saint Anselm Episcopal Church에서 열렸다.

이 송년음악회는 청소년 비전센터를 돕기 위한 취지로 80세가 넘는 아카데미 가족들이 참여해 목소리도 안 나오고 약보도 잘 일을 잘 모르지만, 수개월 동안 정성껏 연습한 곡들을 찬양과 연주로 선보였다.

이날 아카데미 회원들은 합창, 기타, 오보에 합주, 피아노, 차임 합주 등을 선보이며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와 감사를 받았다.

박소건 목사는 “연료하신 어르신들이 손녀, 손자뿐 되는 청소년들이

이 일제시대 때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금을 모아서 언론사에 전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었던 기억이 있다. 이번에도 청소년들을 돕게 되면서 너무 감사하고, 천국을 마음에 품고 여생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실버아카데미는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개설된 과목은 노래교실, 생활영어, 맨스, 건강체조, 레크레이션, 시사정보, 교양강좌 등이 있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단체는 순수한 도네이션에 의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며 또 진행되는 활동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동영상으로 제공된다.

이인규 기자

남가주장로협의회 총회 및 사랑나눔 전달식 개최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가 제37차 정기총회 및 사랑나눔 전달식을 11일 오후 5시에 한인타운 내 한 호텔에서 개최했다.

여기에는 남가주 지역 각 교회로부터 약 40여명의 장로들이 참석해 교계 연합 활동에 지대한 관심과 열기를 드러냈다.

이 총회에서 내년엔 봉사하게 될 37대 회장에 하기인 장로가 선출됐다.

이날 1부 예배는 사회에 이장건 장로, 기도에 한철수 장로, 말씀에 사랑

으로 행하자(고전16:13-14)란 제목으로 이장건 목사(유니온교회 원로 목사), 현금기도에 박광원 장로, 특별찬양에 김광은 장로, 축도에 정호운 목사(나성성결교회) 순으로 진행됐다.

2부 불우이웃을 돕는 사랑나눔 전달식은 하기인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밀알선교회, 나눔선교회, 소중환사람들 등 개인 및 17개 단체에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가 모금한 성금이 전달됐다.

토마스 맹 기자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가 제37차 정기총회 및 사랑나눔 전달식을 11일 개최했다.

싱글패밀리 벅킷 성황리 열려



싱글패밀리 벅킷이 11일 오후 5시 한인타운에 있는 '왕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FMC와 FBM을 한해 돌이켜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애써 온 한부모님들(Single Parents)과 그 자녀들을 위해 11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오펜지카운티에 있는 '왕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부모 가족들은 연휴가 되면 상대적으로 빈곤감 가운데 자칫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기 쉽다.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두세가지의 일을 하는 싱글 부모들은 배우자의 빈자리까지 채워야 하는 부담감을 늘 갖고 있다. 그렇기에 싱글패밀리 벅킷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커넥션을 만들고 확대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아 보기에 상당한 자유 효과가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예배 및 식사 교제를 나누고,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청해 진행한 게임과 푸진한

경험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한해의 근심 걱정을 날려 버렸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FMC(Family Ministry Counseling) 대표 씨니 송 교수와 FBM(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남가주사람의교회, 세리토스장로교회, 온누리교회, 로렐교회, LA비전교회, 미주비전교회, 은혜교회 등 여러 교회의 한부모들과 자녀들이 90여명 참여했다.

또한 한부모 사역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지도자 3명에게 표창장 및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다. 주최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쌀 한포대씩과 각종 경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문의: 714-514-6690 토마스 맹 기자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메시아 연주회 개최

토랜스제일장로교회(김준식 목사)는 음악부 정기 '헨델의 메시아' 연주회를 11일 오후 7시 교회 분당에서 개최했다. 인사말을 전한 김준식 목사는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한다”며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준비한 이 찬양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공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성탄의 기쁨이 가득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예수님의 예언+탄생, 수난+속죄, 부활+영생 등 세부부분으로 나눠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패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교회 기념티셔츠

동부사인&트로피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간판부 Tel.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626) 810-2621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종교비자, 종교인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ESL...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건축설계...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의사보조... Medical Assistant 어카운팅 AAS 학사취득... Accounting (AA Degree)

약사보조... Pharmacy Technician 그래픽,포토샵...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오전, 오후, 저녁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부 미국인교수

Advice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i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818,382,6000

Bus 20분 ORT Lajolla Fairfax 맥드넬드 Wilshire

상담필수 오전 8:30~1:30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직통 (213) 703-6863 (323) 966-5444

상담: 그레이스 (Grace)

방문비자(B1,B2)를 학생비자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민사회 최초로 가정사역 시작해 지금까지 20년 - CMF 대표 김철민 장로 인터뷰

가정의 참된 행복,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사랑 알아야

가정사역. 1980년대만 해도 낯설기만 했던 이 단어가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외침만큼 중요한 사역이 되었다. 미주 한인교회에서 가정사역을 최초로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가정사역의 산 역사"라면 누구라도 CMF(Christian Marriage and Family Ministries)를 꼽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단체의 대표인 김철민 장로는 "산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리학 박사를 꿈꾸며 미국에 유학 왔던 그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붙잡혀 가정사역자가 된 이야기를 들어본다. 그는 미국 정부의 협력단체인 한우주항공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평신도이지만 웅변한 풀타임 사역자 못지 않게 미주와 전세계를 누비는 가정사역의 대표 주자다.

모태신앙이던 그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싶어 7명의 친구들과 함께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서원하고 선교단체까지 조직해 활동했다. 그 7명 중 5명이 목사와 선교사가 됐지만 정착한 하나님은 그에게만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다.

평신도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그는 1989년 KCCC 활동을 시작하며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선교 운동을 체험했다. 지금 CMF에서 함께 활동하는 강순영 목사와 그때 만났다. 이후 그는 KCCC에서 주최한 가정사역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아무 문제 없는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가정"이란 새로운 관점에서 보이면서 "모든 사람에게 가정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1991년부터 자체적으로 결혼교실을 열며 청년들에게 기독교적 결혼을 지도해 오던 그는 1999년 CMF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이 사역에 뛰어들었다. 지금까지 22년째 오면서 95기가 졸업했고 수천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CMF는 독특한 조직이다. 첫째는 사역자들이 각자의 일을 한다. 강순영 목사는 자사에서 활동하고 있고 김철민 장로는 온라인가운데제일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CMF가 주최하는 결혼교실, 선교사부부축제, 결혼상담 등 주요한 일정을 때가 되면 어김없이 모여 CMF의 활동을 이끈다. 아니다. 더 정확히 말

하면 각자의 사역지에서 언제나 CMF의 활동을 하고 있다가 중요한 행사가 되면 그 공력(功力)을 시전(施展)한다고 말할 수 있다. 김철민 장로도 CMF의 공식 일정 외에 평일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쪼개서 상담 사역을 하고 있고 휴가를 아껴 전세계에서 집회를 인도한다.

두번째는 사역자와 그 대상의 구분

이 만나서 형성된 우리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깨달음으로서 얻게 되는 행복은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서 행복해지는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피동적인 것이다.

신을 내어주실처럼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아내를 그리스도교의 머리됨같이 남편을 순종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깨달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 즉 남편과 아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사랑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이루면 된다. 그 과정을 가도록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상담이다.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한 사랑을 깨닫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점이다. 나는 가정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깨닫길 바란다.

영적 전쟁터인 가정의 많은 문제들

소중한 피조물 하나돼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깨달아야

이 없다. 사역자 자신이 가정사역의 대상이며 가정사역의 대상이 곧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 평신도 선교사들이다. 그래서 결혼교실을 거쳐간 이들이 만나서 결혼에 골인하기도 하고 이들이 전세계에 가정사역을 전하는 선교사로 나가기도 한다.

세번째는 그 활동이 가정사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선교사 파송 및 후원 사역, MK 사역, 장애우 사역, 및 시 사역, 음악 사역 등 여러 활동을 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 이들의 전문분야인 "가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김 장로는 "가정사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정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우리의 전도 대상"이라고 했다.

-가정 사역이 무엇인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안 싸우고 잘 사는 건가?

가정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피조물임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는 전세계 70억명 중에 오로지 1명밖에 없으니 얼마나 소중한 건가? 우리가 가정에서 겪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은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좀더 철이 들어서 내 아내도 70%의 1이니 소중한 존재라는 점, 그리고 70%의 1과 70%의 1

-주관적인 행복의 원리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랑할 대상을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쌍으로 지으셨는데 인간만 아담을 먼저 흙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아담이 스스로 "혼자 있는 것이 안 좋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후 후속이 아닌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셨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뜻이다.

좋은 신은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짓는 행위를 통해 "나는 돕는 배필이 없구나"를 깨닫게 하신 후, 배우자를 주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피조물인 두명의 인간이 만나서 또 다른 완전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다.

물 위를 걷는 방법이 있다. 엄청난 게 빠른 속도로 달려서 물에 발이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내딛으면 된다. 임자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그 임자간에 무수한 교류가 발생하면 굉장히 탄탄한 구성이 이뤄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남편의 희생적 사랑, 아내의 순종적 사랑을 무수히 교환하며 하나되도록 하셨고 그리 될 때 우리가 행복해 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담을 해야 그런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나?

남편은 그리스도교 회교를 위해 자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데.

가정은 영적 전쟁터다. 우리는 가정이 불화하는 원인이 성격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되도록 명령하셨다. 그렇다면 사탄은 이 둘이 하나되는 것을 죽도록 싫어할 것이다. 즉 가정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장이다. 성격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죄성 때문이다.

우리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그런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시작이란 점에서 큰 축복이라고 말해 준다.

-가정사역을 죄의 문제와 연결시키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어렵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그들에게 성경적 관점에서 설명해 준다. 그리고 함께 기도한다. 그러면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기에 이혼 직전까지 간 가정이 회복되고 많은 청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짝을 만나는 등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도와 줄 뿐이다.

지금은 이민교회에 깨진 가정이 많아 교회에서 이와 관련된 설교나 사역을 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한다. 게다가 기독교 가치관에 어긋나는 동성애 등 다양한 가정 구성이 나타나면서 가정사역도 복잡성을 띠게 됐다.



김철민 장로

-가정사역자만이 가정사역을 해야 하나?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목회자들도 은사가 다르다. 은사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CMF는 교회와 별개의 단체가 아니다. 교회의 사역을 돕는 단체이다. 그리고 가정사역은 은사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

심리상담을 통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나 갈 데까지 간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 외엔 답이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보아 왔다.

가정 사역은 지식 전달을 넘어 있다. 그것은 단순히 약물이나 대화로 Change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Transform을 추구하는 것이다.

죄라는 근본의 문제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해결책을 만나야 한다.

김준형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정 산 자동차 보험 앞선

전문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당금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세,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인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알립니다!!

2011 처음 메디케어 A와 B를 받으시는 분

GUARDIAN ANGELS INSURANCE AGENCY 수호천사보험

CA LIC #0G6788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료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해외여행시 응급비용지원
- 헬스클럽 멤버십 • 교통편 제공 등

무료상담 : 213-503-6897 (폴선)

무엇을 물어 보실까요?

목(경부)

목은 양쪽의 어깨뼈를 높이고, 목근육의 긴장을 풀어 어깨가 더 편안해집니다. 학생, 사무직, 가사, 목수, 스포츠 애호가 등.

통상부

근육을 따뜻하게 하여(특정사우나, 비만예방, 팔다리, 팔뚝, 무릎, 발목, 손목, 손가락, 발가락)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발가락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MOVIE BACK 30일 100% GUARANTEED

Sae Arc please call (888) 516-2291 or visit us at www.SaeArc.com

크로버 탄소매트

크로버 탄소매트로 건강과 따스함을 동시에 선물하세요!

TWIN	FULL	QUEEN	KING
38"x74"	53"x74"	59"x79"	72"x80"

전자파 차단

매트 안에 전기선 대신 공기소재 탄소원단이 들어가 있어 전자파 걱정을 없었습니다.

전기선이 아닌 탄소 발열체 원단 사용

크로버 탄소원단은 탄소실을 사용하여 제작한 전기선이 없는 방형매트의 원단입니다. 다량의 원적외선 방사와 전기에너지로 고효율로 바꾸어 주는 고기능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1 YEAR WARRANTY

확실한 품질보증 - 제품문제 시 1년간 무상교환

속면! 곰팡이 억제! 향균! 냄새 제거!

취침기능

최우 편리한방 10시간이상 사용시 자동꺼짐

신제품!

크로버 탄소방석 (차량겸용)

탄소방석 차량겸용

DC12V용 직류식 탄소염류 온열방석

메트 안을 비교해보십시오!

기존 전기매트 비교 크로버 탄소매트

전기열선 탄소염류원단

제품 바닥면을 원단 사용 도르 처리하여 미끄러짐을 방지

더 자세한 정보는 본사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www.crovergreen.com

대리점 문의 323-588-7277 info@crovergreen.com

2605 S. Santa Fe Ave. Vernon, CA 90058

<p>Los Angel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스매화점 (213) 389-1111 * 김소전기 (213) 386-4882 * ABC 플라자 (213) 386-1155 * 헬스코리아 * 아씨마켓 (213) 487-4986 * 갤러리아 (323) 733-4986 * 홈타운 메디칼 (213) 380-1599 <p>Fullert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들 홈쇼핑 (714) 515-3408 	<p>Garde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rukai (310) 660-6300 <p>Torran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트 내이비스 (310) 326-6666 <p>Cerrito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불나라 (562) 402-3737 <p>Garden Grov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불나라 (아리랑마켓) (714) 539-8860 <p>Diamond B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 Home Mart (909) 595-7521 	<p>플로리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 Mart 이민마트 (303) 366-0454 * San Diego * 인불나라 (시온마켓) (858) 496-0766 * Santa Clara * 이불나라 (408) 834-3004 <p>Rosemea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l Mar Supermarket(Thai Phat,Inc) (626) 288-3098 <p>Tacoma 워싱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신백화점 (253) 589-5388 	<p>Flushing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씨안복 (718) 886-8101 * 150 환우속출점대 (718)358-7700 * Springfield 버지니아 * Annandale Water (571) 228-2260 * 만수건강 (703) 750-6699 * Petersburg 버지니아 * John's A.O. Furniture (804) 732-0115 * Fairfax 버지니아 * 웰빙 모어 (703) 246-9870 	<p>Las Vegas 네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Y-IN 홈쇼핑 (702) 370-3366 <p>Chicago 일리노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이마트 (773) 478-0007 <p>Stawane 조지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y N Joy (770) 232-7846 <p>El Paso 텍사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리랑마켓 (915) 751-6500 <p>McAllen 텍사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Princesa (956) 630-5788
--	---	---	---	---

남가주목사회 “겸손한 자세로 사업 감당할 것”

세미나 및 작은 교회 위로회, 장학 사업 등 목표



남가주목사회가 최근 새 회장단 및 임원진을 선출한 가운데 12일 오후 간담회를 가졌다. 아래줄 가운데가 회장 김영대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가 최근 새 회장단 및 임원진을 선출한 가운데 12일 오후 한미타운 내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모임에는 신임회장 김영대 목사와 수석부회장 김영모 목사 및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김영대 목사는 신임을 얻는 목사 회로 만들기 위해 겸손한 자세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것을 약속하며 △목회자들과 목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민신학, 영성신학, 이단 대

처 등을 위한 세미나 개최 △1세와 2세 목회자의 정보 교류 및 합동 세미나 개최 △원로목회자들을 위한 위로회 △친교를 위한 목회자 체육대회 △작은교회 목회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모금 등의 사업을 내년에 펼치겠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4시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리는 이취임 예배를 시작으로 사업을 출발하는 새 임원진들은 22일 남가주 교협 임원들과 내년 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합동 간담회를 갖고, 23일 오전에 그랜드뷰 양로병원을 방문해 노인들에게 옷 200벌을 선별할 계획이다.

또 2012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소강석 목사 집회 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대 목사는 “내년에는 더 많은 남가주 목회자들을 참여토록 해서 건전한 목표를 갖고 보람있는 사업을 펼쳐 나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음악회는 어른 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참여해 아름다운 찬양을 선사했다.

벤추라카운티교회연합 성탄감사찬양예배 개최

다양한 장르의 음악 선보여

벤추라 지역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찬양했다.

벤추라카운티교역자협의회(회장 최상훈 목사) 주최로 웨스트레이크교회(오정택 목사)에서 11일 저녁에 열린 성탄감사찬양예배는 사회에 오정택 목사, 대표기도에 박민규 목사(옥스나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설교에 이상영 목사(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헌금기도에 정준호 목사(리빙스톤교회), 축도에 최상훈 목사(벤추라감리교회)순으로 진행됐다.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이상영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며 “등방박사 세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의 의미는 주님은 나의 왕, 구세주, 제사장이란 신앙고백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우리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날 찬양예배는 벤추라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여 참석한 이들의 환호를 받았다.

벤추라감리교회는 엄마와 아들이 함께 한 <성탄 메들리>를,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는 성가대와 어린이들이 준비한

<아기 예수께 찬양>,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의 성도들로 구성된 찬양팀은 <구원의 찬양>, 씨미밸리한인교회 밴드팀은 <높은 곳의 주님께>, <성탄캐롤>을 연주했다.

이어 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 윤정수 집사가 워십댄스 <그림부으심>을 선보이며 은혜로운 시간을 더했으며, 참석한 성도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다 같이 찬양하며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했다.

한편 벤추라교역자협의회는 한인들이 비교적 적은 벤추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교회 연합을 도모하고 있다.

회원 교회로는 다우전옥스한인장로교회(이종수 목사), 새생명장로교회(이태호 목사), 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오정택 목사), 리빙스톤교회(정준호 목사), 씨미밸리한인교회(안재근 목사), 씨미밸리예언교회(이윤호 목사),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목사),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임진태 목사),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박민규 목사), 옥스나드한인교회(김진국 목사), 벤추라감리교회(최상훈 목사), 열린문장로교회(김경욱 목사)가 있다.

토마스 맹 기자

글렌데일장로교회 류준영 목사 위임

2011년 2월부터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에서 설교목사로 시무해 온 류준영 목사가 12월 18일 PCUSA 한미노회로부터 담임목사로 위임받는다.

글렌데일장로교회는 1974년 3월 고 김기호 목사에 의해 개척된 교회로 1988년 현 성전(4002 Verdugo Rd. Los Angeles)을 구매하고 성장을 거듭해 왔다.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는 지난 10개월간 류 목사와 함께 교회의 사명과 본질에 대해 온 성도들이 연구하며 기도했다.

류 목사 부임 당시만 해도 어수선했던 교회 분위기는 지속적인 말씀 사역으로 인해 안정을 되찾았고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하게 일



류준영 담임목사

어나고 있다.

특히 류 목사가 치중하고 있는 말씀 사역과 심방 사역이 성도들에게 크게 어필하며 교회가 제도약하는 기를

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는 교회 성장 뿐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과 타민족 복음화까지 고민할 정도로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대변신을 하는 중이다.

류 목사는 “하나님 은혜의 복음 위에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온 교우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고 싶다”는 비전을 밝혔다.

류준영 목사는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토렌스세일장로교회에서 부목사를 역임했다.

위임식은 12월 18일 오후 4시 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이인규 기자

동부교역자협

신임회장에 김민섭 목사

최근 남가주교협과 OC교협, 벤추라카운티교역자협의회, 인랜드교역자협의회, 샌버나디노교협협의회, 중부지역교역자협의회가 총회를 열고 새 임원을 선출한 가운데 동부지역교역자협의회도 총회를 갖고 2012년 새 임원을 선출했다.

동부 지역 목회자들은 13일 저녁 동부 지역 풀러미에 위치한 ‘신원’ 식당에서 열린 총회에서 신임회장에 김민섭 목사(엠마오장로교회), 부회장에 김병학 목사(주님의교회), 총무에 전병주 목사(나성한미교회), 회계에 송병주 목사(선한정지교회), 서기에 박승규 목사(동부사랑교회)를 선출하고 동부 지역 복음화를 다짐했다.

동부지역교역자협의회는 매년 연합찬양제, 부활주일 새벽연합예배, 광복절 연합기도회, 성탄 연합상가제로 동부지역 교회연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인규 기자

PHOTO NEWS

미국을 다시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자

비록 광야였으나 청교도들에 의해 신앙으로 축복받은 땅이 된 미국. 그러나 그 미국이 다시 광야로 변해가는 현실을 놓고 “우리가 미국을 다시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자”는 비전 아래 한민교회가 4주간 세미나를 진행했다.

11월 20일 첫 세미나부터 12월 11일 마지막까지 성도들의 뜨거운 참여 가운데 세미나가 진행됐으며, 성도들은 정치학 박사이자 목회자인 최상준 담임목사의 사회적, 정치적, 신학적 분석에 공감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대한 비전을 나눴다.

이인규 기자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제 45 대 남가주한인목사회 이취임 감사예배

일시 : 2011년 12월 18일 오후 4:00
장소 : 한미장로교회 (이운영 목사)
929 S. Westlake Ave., Los Angeles CA 90006
(213) 739-8824

박효우 목사(44대 회장)

김영대 목사(45대 신임회장)

김영모 목사(5대 신임 수석부회장)

제45대 남가주한인목사회 임원조직

<p>□ 회 장 : 김영대</p> <p>□ 수석 부회장 : 김영모</p> <p>□ 부 회 장 : 고재원 고주모 김기동 김병용 김선국 김성대 김영석 김은목 김재우 김중태 김철 김철수 박만순 박병구 박은중 박종대 박창형 백지영 서요한 안광식 엄규웅 오유석 우광성 이광재 이석부 이성도 이승철 이원재 이철훈 이춘준 이춘애 임의치 전석호 정요한 정종우 조 현 조경현 주성영 주재임 최순길 추창효 현에스터</p>	<p>□ 총 무 : 허귀암</p> <p>□ 부 총 무 : 고병권 김중근 박근덕 유영석 이순환 이현국 조명철</p> <p>□ 협동총무 : 니영채 유창렬 정경화 정연성 정중환 조주현 진석호</p> <p>□ 서 기 : 김수재</p> <p>□ 부 서 기 : 성준기</p> <p>□ 회 계 : 양석용</p> <p>□ 부 회 계 : 최성권</p> <p>□ 감 사 : 장재원 이흥현</p>
---	--

Southern California Ministers Association
7713 Quill Dr., Downey, CA 90242
연락처 : 총무 허귀암 목사 (714) 308-7308

□ 분과위원장

교육분과위원장 : 김 호	원로분과위원장 : 이상현
교정분과위원장 : 이병희	윤리분과위원장 : 송정명
구제분과위원장 : 김수철	음악분과위원장 : 송규식
군선교분과위원장 : 백형로	의료분과위원장 : 김인철
대학청년분과위원장 : 김철수	이단대책실행위원장 : 한기완
목회분과위원장 : 김사무엘	이민신화분과위원장 : 오상철
목회자자녀장학위원장 : 임형진	장애우분과위원장 : 오진형
복지분과위원장 : 엄규서	재정분과위원장 : 석태운
사모분과위원장 : 김순옥	전도분과위원장 : 강순영
사회분과위원장 : 박모세	청소년분과위원장 : 여병현
상담분과위원장 : 김영길	체육분과위원장 : 강 풀
상조분과위원장 : 윤태환	친교분과위원장 : 팍소건
선교분과위원장 : 김영일	통일분과위원장 : 이수원
신학분과위원장 : 김남을	학술분과위원장 : 박성근
아동분과위원장 : 엄테레사	한미교류평신도위원장 : 임혜빈
언론분과위원장 : 전제학	홍보분과위원장 : 박신욱
여성분과위원장 : 황에스터	회칙수정위원장 : 박효우
예배분과위원장 : 강종민	

* 모든 명단은 사정에 따라 수기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누가복음 2:8~14



장재효
서울 성은교회 목사

누가복음 2:8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 지라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평화라 하니라

1. 예언 성취의 성탄

아담의 범죄 후 하나님께서 서둘러 구속의 의지를 창세기 3장 21절에서 밝히셨는데 그 내용은 대속을 위한 희생양의 필요성이었다. 이후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사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한 구체적인 예언이 있어 왔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셨으니 대속을 위한 희생양은 처녀의 몸에서 출생할 것을 계시하시며 그 목적은 임마누엘(IMMANUEL)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메시아는 베들레헬에서 출생할 것이며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나”라고 하셨으니 요한복음 1장 1, 14절 말씀과 대조해 볼 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 살신성인(道成人身, INCARNATION)하신 것이 분명하다.

메시아는 왜 동정 탄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의 자손된 전 인류는 죄 아래 태어났고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았기에 죄 값에 시달리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죄인은 자신의 죄도 해결할 대책이 없을 뿐 아니라 남의 죄도 해결해 줄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의인의 있어야 했고 그 의인만이 죄인들을 구속할 수가 있는 법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 탄생을 하신 것이다. 그러면 “처녀 마리아는 아담의 혈통이 아니며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가?”라는 의문을 제시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구약 시대의 복음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이미 그의 죄는 약속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도 구약과 신약의 중간지점에서 자기가 동정 출산한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름되는 인정을 받은 것임을 알게 된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정 해산한 후, 정혼한 요셉과의 부부 사이에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딸 넷을 낳은 것으로 마태복음 13장 55, 56절과 요한복음 7장 3-5절, 마가복음 3장 31-32절에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로마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로 영원한 동정녀(永遠한 童貞女로 念,

Perpetual Virginity of Mary)로 주장하며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하셨으니 곧 이단이라는 말이 된다. 사실 마리아야말로 예수님만을 동정 해산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소임을 감당한 것이 되었고 그 후에 일반 여인으로서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요한복음 1장 10-11절에서 예수님이 창조하신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마저도 영접하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궁에나 대가의 내실에서 출생하지 못하고 왜 마굿간에서 나시고 집대가 아닌 구유 위에 누우셔야 했는가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 구약 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왕궁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생하는 말씀의 선지자로 오신 것이다. 그가 짐승들의 거처인 마굿간에서 출생하신 것은 선민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 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에 그들을 구속하러 오신 것이며 천하고 가난하며 소외된 밑바닥 인생들을 위하여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것이 아닌가!

2. 천사들의 증언

밤에 별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베들레헬 마굿간에서 출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소개하며 빨리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면서 그같이 확인되어야 하는 사실이 곧 표적임을 밝혔다. 본래 천사는 영물로서 사람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법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영의 눈을 띄워 주실 때에는 영계를 볼 수도 있고 천사들도 보게 된다. 그 천사들의 증언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고 했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유양겔리조마이 카란으로 곧 “큰 기쁨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노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복음을 전하노라 한 것이다.

그렇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고 하시고 같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러 오신 분으로 베들레헬 마굿간에서 시작된 그의 생애는 멸시, 천대며, 수모와 고난의 연속으로 세상이 그에게 베푼 마지막 대접은 십자가 형틀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그 십자가 형틀에 못박히고 가시와 창에 찔린 상처를 통하여 흘리신 피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영원한 대속의 보혈로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오늘날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이미 살았었고, 살고 있고, 살게 될 이 세상 사람

들 중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대속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심을 증언한 것이다.

3.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전술한 바와 같이 아담의 범죄로 완전 타락한 인류는 악령 사탄의 짝이 되어 범죄하며 이성을 잃고 하나님께마저 대적하고 발악하는 지경이어서 에베소서 2장 2-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으니 세상에는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보거나 두려워하는 자도 없어 흑암에 사로잡힌 죄인들, 곧 진노와 형벌의 대상뿐이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죄값으로 당하는 고통과 지옥의 형벌을 그대로 외면할 수 없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을 위한 희생양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그 같은 하나님 편에서의 구속의 지극 은혜계약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회개하며 성령의 감동에 의한 진실된 신앙고백을 하게 될 때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영적 소망의 결실을 이루기 위하여 보혜사라는 성령까지 파송해 주심을 받게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믿음에는 자기의 지적 은혜계약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조명과 감동에 의하여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 전자는 환경에 따른 형편 처지의 변화와 심경의 변동에 따라서 자기 믿음을 스스로 쉽게 중단할 수도 있겠지만 후자의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속으로 불려내셨고 성령의 계시 감동으로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계속 집중적으로 역사해 오시기 때문에 자기 의지적 주관의 부정이나 의도적인 거부 반응도 부질없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이끌리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이

러한 경우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신 바와 같이 죄악으로 저주 아래 있어 지옥길을 탐욕박질하는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진노의 대상이요 곧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 중에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면서 성령의 계시조명과 감동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어져서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본문 중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심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영원한 그분의 자녀로서 무한한 영광을 돌리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영생복락의 후사가 되겠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도 없고 또한 자신들도 기뻐할 아무런 기대가 없게 되고 만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공연히 들떠서 흥분하고 죄악의 온상인 유흥장을 휩쓸고 다니며 온갖 죄악으로 낙을 삼는 듯 먹고 마시며 쾌락을 좇아 방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같은 형태는 성탄절의 의미를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대속을 위한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의 섭리를 오히려 악으로 보답하는 배은망덕이며 하나님의 미움을 더하여 진노를 재촉하는 불행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금년 성탄절에는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술집이나 유흥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여 교회와 기도원으로 구름떼같이 모여들게 하고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를 의지하여 이 민족이 복음화 되게 하며 나아가서 인류 복음화를 위한 세계선교에 더욱 진력해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사명이 아닐까!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에 쓰임받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토요일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일보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담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묵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담임목사 청빙 공고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시에 위치한 샌디에고 갈보리장로교회는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지난 23년 동안 주님을 섬겨오며 사랑으로 함께 해 온 신앙공동체입니다. 그 비전을 함께 나누며 신실하게 헌신하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조건

-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으로 5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분 (담임 목사, 부목사, 혹은 선교사)
- 미주 한인 예수장로교회 국제총회에 속한, 또는 본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 담임목사 지원서 (Application Form): 양식은 갈보리교회 website www.sandiegocalvary.org에서 download
- 자기 소개서 - 본인의 성장 배경, 신앙 간증, 목회 비전, 지원 동기 및 가족 소개서 포함
- 소속 교회 최근 주보 1장
- 설교 2회분 (동영상 DVD, MP4, 또는 Website Link)
- 추천서 1부 이상 (추천서는 1차 서류 심사 통과한 분에게만 갈보리교회에서 요청합니다.)
- 목사 안수 증명서 사본 및 최종학교 졸업 (학위) 증명서

접수 마감: 2012년 2월 4일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심사후, 청빙후보자에게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 1차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후보님들께는 전화인터뷰가 있습니다.

제출처: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6970 Linda Vista Rd, San Diego, CA 92111
Email: sandiegocalvary@att.net

(제출서류는 PDF File로 상기 e-mail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추천서 또한 추천자로부터 직접 상기 e-mail로 보내주시길 권장합니다.)



미국교회들 성탄예배 축소하거나 없애기도

“잘못된 세상적 문화에 물들어 있다” 지적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의 본래의 의미보다는 '산타나 '연인과의 데이트',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을 떠올리는 시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청교도의 나라인 미국에서 이러한 풍토를 바꾸어 나가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속화와 타협해 성탄예배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최근 1천 명의 개신교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1%만이 올해 성탄예배를 계획하

고 있다고 답변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가질 것이라고 답한 목회자는 69%에 불과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대표인 에드 스테처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접는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많은 비(非) 예배주의(non-liturgical) 교회들이 크리스마스와 이브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릭 웨렌 목사의 새들백교회는 예배를 축소했다. 지난 해에도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미국

대형교회들이 크리스마스 다음날 주일예배를 취소했다. 해당 목회자들은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이 가족들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라이프웨이는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크리스마스와 이브 양일간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성탄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나빠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이프웨이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70%가 넘는 미국인들이 “성탄절은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라는 데 동의하

고, 역시 비슷한 비율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즐길 것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것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테처 대표는 이같은 인식이 성탄예배 참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나는 언제나 이 시즌의 이유가 예수라고 말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드리지 않는다”며 “많은 음악과 불빛이 있지만 예수는 충분히 없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에 물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순현정 기자

나다르카니 목사 석방 요구 이어져

클린턴 “당장 석방” 촉구... 12월 중순께 결정날 듯

기독교 신앙을 철회할 것을 거부해,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이란의 '요세프 나다르카니' 목사로 인해 이란 정부를 향한 전세계적 비난 여론이 집중한 가운데, 최근 미국이 다시 한번 압박을 가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10일 유엔총회 63주년 기념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전세계 모든 정부가 인권과 불빛이 있지만 예수는 충분히 없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에 물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나다르카니 목사

하다 2009년 10월 13일 체포됐다. 지금까지 투옥생활을 하고 있는 나다르카니 목사의 죄명도 처음 반동 시위에서 무슬림을 전도하고 이슬람교를 배반했다는 죄명으로 바뀌었고, 2010년 9월 말 사형이 선고되기에 이르렀다. 나다르카니 목사 측이 이후 법원의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항소했지만, 올해 6월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확정했다.

라쉬 지역 지방 법원은 나다르카니 목사에게 '개종하기 전에 무슬림이었다면, 현재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경우 재고할 방법이 있다'고 뜻을 전했지만, 그는 총 4번에 걸쳐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34세의 젊은 목회자인 나다르카니 목사는 가정교회네트워크의 리더이자, 이란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의 회원이며, 결혼해 9살, 7살 아들을 두고 있다.

권나라 기자

남침례회 교세 감소 “교단명칭 바꿔”

4년 연속 교세 감소... 여론조사 40%, SBC 부정적 이미지 토로

미국을 대표하는 최대 개신교단이자 최대 선교사 파송 단체인 남침례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가 166년간 간직했던 교단 명칭 변경을 고심하고 있다. 명칭 변경의 가장 큰 이유는 감소하고 있는 교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소속 라이프웨이리서치 팀은 최근 교단 명칭과 관련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단 명칭을 변경할지는 추천서를 브라이언트 라이트 회장에 제출한 상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2월 임원위원회 모임 때까지 비밀에 부칠 예정이다.

시한 결과, 40%가 교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표시했고, 44%가 교회가 문 및 등록을 망설이게 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절반이 넘는 53% 응답자가 남침례회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지만, 부정적 견해도 무시할 수 없게 높은 비율을 차지해 교단이 고민에 빠진 것이다.

남침례회 전 회장인 지미 드레이크 목사는 “만약 우리 교단이 교회를 활발히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인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빠르게 세상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교단 명칭 변경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개진했다.

포된 정체성을 놓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와 관련 남침례회 내에서 교단 명칭을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24년 간 캘리포니아 부에나비스타 제1남침례교회(First Southern Baptist Church)를 담임하고 있는 윌리 드레이크 목사가 그 중 한 명. 드레이크 목사는 교단 명칭 변경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펼치면서 “우리는 성령에 기반한 보수 교단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남침례회라는 이름은 가진 고유 교회 명칭은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교단 명칭 변경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하루 68만7천명 예수 영접 인터넷 덕에

시대가 변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전도가 일상성이 아닌 지속적 열매를 맺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최근 한 사역기관을 통해 발표됐다.

글로벌미디어아웃리치(GMO)에서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예수를 영접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34%가 매일 성경을 읽고 하루에 적어도 10분 이상의 기도를 하고 있다고 기뻐했다.

GMO 창립자인 윌트 윌슨은 “온라인 전도가 순간적 결정을 하게 하는 일시적 결과가 아니라 지속성을 띠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결과는 매우 놀랍다”면서 “온라인 전도와 제자훈련이 매우 주목할만한 효과적 전도방법이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기뻐했다.

순현정 기자

4년 연속 교인수 감소 특별한 조치 없으면 감소 계속될 것 위기감 고조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라이트 회장은 1천6백만 교인을 대표하는 교단이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이름이 변경되더라도 침례교(Baptist)라는 명칭은 그대로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름 변경을 고심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불필요한 장벽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명시했다.

2010년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남침례회가 근래 미국 내 선교사 파송 운동 등 활발한 전도 활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교단 교인수가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단 소속 교회 중 18% 가량이 비(非)백인 중심 회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백인 중심 교단의 성향은 약화됐다 평가된다. 정치적 성향은 여전히 보수성을 띠고 있다.

라이프웨이리서치 팀 역시 교단 명칭이 변경될 경우,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나 선교사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찬성에 한 표를 던지고 있다.

남침례회는 1845년 남북전쟁 중 노예제 찬반논쟁으로 북침례회와 갈라지면서 창설됐으며 오랫동안 “백인 중심의 인종차별적 교회”라는 선입견이 있다.

이와 반대로 남침례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조지아주 크로스포인트교회 담임 제임스 매릿 목사는 자기 교회의 이름을 정할 때 '남침례회'라는 명칭을 넣지 않았다. 매릿 목사는 “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 교회로 올 때 어떤 장애물이든 교회에 있다면 제거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면서 “남침례회인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지만,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장벽이 된다면 기꺼이 제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라이트 회장이 오는 2월 모임에서 교단 명칭 변경을 제안하게 되면 제안서는 총회에서 2년 연속 총대들의 통과를 받아야 한다.

권나라 기자

라이프웨이리서치 팀 에드 스테처 회장은 “교인수가 감소되기 시작한 것은 근래에 들어서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부정적인 추세는 교단이 특별한 변화를 취하지 않는 한 바뀌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응답자 40% SBC 부정적 이미지 감해

최근 라이프웨이리서치가 미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투표를 실

수조사 40%, SBC 부정적 이미지 감해

보수적 성향 강한 남침례회 교단 내 정체성 변경 쉽지 않을 것

데이빗 W. 키 서전트 교수(에모리대학교 신학대학원 남침례회 연구부 디렉터)는 “남침례회는 여성 목회자 안수를 거부하고 동성애자 권리에 대한 엄격함을 유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 반면, 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교단 명칭에 내

교단 총대 중 한 명인 필립 선 목사(테네시 블레스트호프침례교회)는 반대하는 쪽이다. 그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참석하는 데에 늘 마음 속에 교단 명칭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름 변경에 반대”라고 밝혔다.

순현정 기자

스위스, 복음주의 교회 빠르게 성장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강조가 현대인들 움직여

스위스에서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이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 국영 언론인 스위스인포는 최근 현지 오순절과 교회 지도자인 올리비에 파브르(Favre) 목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위스 내에서의 복음주의 교회들의 성장에 주목하는 보도를 내 놓았다.

파에르와 뇌샤텔에서 교회를 이끌고 있는 파브르 목사는 스위스에서 전통적인 개신교회들에 비해 복음주의 교회들이 두 배 이상 많은 교인들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는 인구 3분의 1 가량이 스위스개혁교회(SRC) 교인들이다. 이런 스위스에서 최근 복음주의 교회들이 두드러지는 성장을 보이는 것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현대인들의 필요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파브르 목사는 설명했다.

복음주의 교회들이 강조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외로움의 문제에 해답이 된다고 파브르 목사는

말했다.

또 하나님이 개인의 삶의 전 영역에 개입하신다는 복음주의 교회의 또 다른 주요한 가르침은 각종 불안 요소들로 가득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파브르 목사는 복음주의 교회들의 다양한 예배 방식이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복음주의 교회의 성장은 복음주의 교회 전통이 강한 아프리카나 남아 출신 이민자가 증가하는 데서 비롯되기도 한다고 그는 분석했다.

파브르 목사는 이처럼 스위스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가 미국이나 유럽에서처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종교적 운동에는 균형이 필요하다”며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복음주의 교회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순현정 기자

올해도 풍성하게 성장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건강히 자라는 사역을 위해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신실한 동역자를 모십니다

모집분야:
교회행정: 디자인 간사, 영상 간사
교육부서: 유아부 전도사, 유치부 전도사

지원자격:
- 디자인 간사: 디자인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에서 다년간 경험이 있으신 분 (교회경력자 우대)
- 영상 간사: 영상관련 전공자 또는 영상 편집 및 CG 작업 가능하신 분
- 교육부 전도사: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 또는 현재 재학 중인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이력서 (사진포함) / 자기소개서 / 신앙고백서 / 추천서 2통 (목회자, 학교/직장)
*포트폴리오 (디자인, 영상 간사)

접수마감: 2012년 1월 15일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처: 세리토스장로교회 행정목사 앞
제출서류는 email로 제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inyourgrace@ilovecpc.com)
포트폴리오는 우편 또는 디지털 파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문의전화: 562-860-5451

세리토스장로교회 |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1841 178th Street Artesia, CA 90701

윌톤장로교회에서는 중·고등부를 가르칠 전도사를 찾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

자격조건 | 정규 신학대학교 재학중이거나 졸업하신 분(남,여 상관 없음) 한국어 사용 가능하고 영어 설교 가능하면 더 좋음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1부 지참해서 교회 전화 연락 후 방문 오양

교회안내 | 470 N. St. Andrews Place, Los Angeles, CA 90004
Website: www.wiltonchurch.com
Tel: 323-469-5959
김도석 담임 목사

쌀 1만포

2011 Christmas 성탄절



“사랑의 쌀 한포는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배부일. 2011. 12.17(토)1차나눔, 12.24(토)2차나눔

미주 전 지역 20여곳의 나눔 장소

* 먼저 쌀 1포 선물권을 받으시고 지정된 나눔장소에서 교환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쌀 공개모금행사

- 일시: 2011년 12월 14일(수) 오후 1시-3시
장소: 김스전기(코리아타운 올림픽 거리)
내용: 개인, 사회단체, 교회 성금전달식과 축하공연
참석: 박희민목사, 한기형목사, 송정명목사, 변영익목사, 엄영민목사, 박성규목사, 노형건선교사, 최혜연목사대표, LA총영사관 외

나눔 선물교환권 배부 안내

개인, 사회봉사나눔, 종교단체들을 통해 1만포를 나누게 됩니다.(타주, 타민족 포함)

* 2009~2010 나눴던 단체들 *

ACCU Construction Inc., Agape Glogal Foundation, Asian Rehabilitation Service, Inc., Celebration of Life Singers, City of Refuge Mission Center, CTS 기독교 TV, CYJ Enterprise, Inc., Dba Celavie, Divinity Community Church, E&CFashion, Inc., Ester's Home, Geda International, GP산교회, Hessed Global Mission Church, Holy Club, Hope Sight Mission, House of Peace, ISSAC, Jenny Tailoring, Jesus Love World Mission, JW Maxx, Inc, KITA, LA Homeless Feeding Ministry, LA 노인회, LA 대한민국기도원, LA 총영사관, LA 한인상공회의소,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 LA동부 교역자 협의회, LA성령교회, LA한우회, LA한인침례교회, Manna Mission, Miracle Mile Mission, Moon S.Chang M. D, Bong S. Chang M. D, Neoblu, Potters House Homeless Church, Propac Distributing Co., RE/MAX LACANADA, Safeway Self Storage Co Inc, San Pedro Whole Sale, SPWM Owners Association, Sunghwa Mission, Sunset Studio, USC천양산교회, 가나안교회, 가나안 선교교회, 가정들 새우의 사람들, 갈보리산교회, 거리의 교회, 경북중고등학교동문회, 고대남기독교우회, 과테말라한인교회, 국제개혁신대, 국제보육협회, 그루터기교회, 근우회, 김갑민선, 나성동산교회, 나성복음교회, 나성북부교회, 나성산교회, 나성생수의 경교회, 나성사부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예수촌교회, 나성한미교회, 나성한인교회, 남가주 노인회, 남가주 해전대학 간호과 동문회 남가주중기교회, 남가주중앙교회, 남가주침례교회, 남가주침례교회, 남가주침례교회, 내셔널한인장로교회, 뉴피플교회, 다정TV, 대량강리교회, 대한민국기도원, 동부장로교회, 들로스산교회, 디아스포라산교회,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마이애미성서화운동본부, 만나미션, 맥시교교회, 무지개가족교회, 무지개교회, 목민수목회, 물대동산장예인교회, 미주김신, 미주예문교회, 미주제일교회, 미주평안교회, 미주하나교회, 미주한인노인복지회 미주한인보통재정전문위원회, 밀양산교회, 발렌시아영학교회, 벨리노인회, 벨리연합감리교회, 드림교회, 로스밸리주연합감리교회, 보람인협회, 복의근원선교회, 브니엘교회, 브라이트 보이스 월드미션, 빛나라미션교회, 사랑의산교회, 사우스베이 한인노인회, 사우스베이장로교회, 사우스베이한미노인회, 새생명비전교회, 새생명선교회, 새소망교회, 새소망한인장로교회, 새하늘 교회, 새하늘선교회, 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 생숙은 교회, 생명나무교회, 생명의전화, 사론의 흙, 삼동장예인교회, 성공회 나눔의 집, 성령의 불꽃교회, 성림장로교회, 성복교회, 성화선교회, 세계동대교회, 세계대교회 심버신교회, 세계로비전교회, 세운노인대학, 새한교회, 소중한 사람들, 송실고등학교동문회, 시온성 중양교회, 아가페홍미선, 아시아안글수기증협회, 아태여성보호센터, 어노인팅, 엔젤레스 프라자 한인침묵회, 엘피스교회, 영광교회, 에벗선교회, 예수로교회, 예수사랑세계선교회, 오렌지카운티제일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옥스포드장로교회, 용수산, 우리민족서동기, 율리산교회, 율리산교회 월드미션대학교, 월드가가페, 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 웨스트레이크교회, 웨슬리산교회, 유헤생모임, 은혜기도원, 이화여고동문회, 인랜드시니어교회, 인터네셔널 자유대학 국민본부, 장로성가단, 장우사랑선교회, 재미기독교여성협의회, 재미기독교여성합창단, 재미합복자지원회, 재미합복자협회, 재미한국노인회, 재미한인복지회, 재미한인직업교육센터, 전미한인복지협회, 재지선교회, 벨리노인회, 조선족선교회, 조이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 빛 선교교회, 주 예수천양교회, 중부시민연맹USA 중앙연합감리교회, 중앙은행, 지평이교회, 참사랑 교회, 창담가든, 코스타 인터내셔널 엔터프라이즈, 쿠쿠밥을, 군사관선교회, 무순사랑의 쌀 운동본부, 파지티브 선교교회, 포도원교회, 푸른초정의 집, 플러선교회대학원, 한국선교장로교회, 한국어어린이회 선교회, 한미교회, 한미동포재단, 한미은행, 한미특수교육센터, 한소망교회, 한인가정상담소, 한인노인복지회, 한인노인회, 한인복지회, 한인어린이회, 어린이선교회, 한인중독중회복센터, 행복한교회, 현대 OB 삼목회, 호도선교회, 호사랑 선교회

사랑의 쌀 나눔운동에 참여한 개인, 단체, 교회명단 (12월 13일까지 약 50,000불 모금)

ACE Commercial(최문환장로), Insik Park, Kyung Ja Park, LA총영사관(신연성총영사), Mrs.Leecha O brien, Propac Corp(Young G. Lee), San Pedro Wholesale Mart (강창근회장), 경북중고등학교동문회(홍승필회장) 고려대학교우회(박중근회장), 나성동산교회(한기형목사)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목사), 나성한미교회(전병주목사), 남가주중기교회(송병렬목사), 남가주침례교회(박용덕목사), 남가주장로성가단(최세형장로), 라스베가스성서화운동본부(서제일목사) 마이애미성서화운동본부(이우호목사), 미주기독교총연합회(송정명목사), 미주복지협회(이중구회장)미주평안교회(송정명목사), 베네수엘라LA평동(최재현대표), 베델한인교회(손인식목사), 북가주메시아시아여성합창단, 사우스베이메시아시아여성합창단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목사), 새생명선교회(박희민목사), 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강홍준목사), 시온약국(최대영장로), 엘에이메시아시아여성합창단 오렌지카운티메시아시아여성합창단, 오페라CA소년소녀합창단, 이명옥집사(메시아시아합창단원), 주님세운교회(박성규목사) 주왕교회(김신목사), 최영대, 최 June, 한국글로벌선진학교(남진석이사장), 한인축재단(배우한이사장)

- * 사랑의 쌀 나눔을 위한 단체신청서는 www.holycityusa.org 에서 다운로드 받아 팩스로 신청하십시오.
* 개인신청자는 나성동산교회(한기형목사)에서 쌀 1포 선물교환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213-487-3920)
* 일시: 12월 14일(수) -15일(목) 오전 10시-오후 2시
* 대상: 65세 이상 시니어와 신체가 불편하거나 어려운 형편에 격려가 필요한 분

* 메시아 찬양예배 참석으로 사랑의 쌀 한 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티켓 10불)

공동주최 LA총영사관, 한국일보(라디오서울-1650), 중앙일보, 우리방송(1230), 미주복음방송(1190), CGNTV(18-4), 미주기독교총연합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주관 및 연락처 : 미주(LA) 성서화운동본부와 홀리클럽 505 s, Virgil Ave. #160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4.5232, Fax.(213) 384.0055 laholicity@yahoo.com , www.holycityusa.org Pay to Order: Holy City -사랑의쌀

World Premier Global Messiah Women's Choir
사랑의 쌀 나눔을 위한 세계최초 메시아 여성합창단 찬양예배
Handel's MESSIAH



- * 메시아 찬양예배 참석으로 사랑의 쌀 한 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티켓 10불)
*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사랑의 쌀 한포를 현장에서 직접 드립니다.
* 메시아 찬양예배에서도 개인, 교회, 단체들의 성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12월 16일(금)7pm 웨스트힐장로교회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12월 17일(토)7pm OC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12월 18일(주일)7pm 동양선교회 424 N. Western Ave., LA CA 90004

“한기총 10.28 정관 개정, 중론 다시 물을 것”

길자연 회장, 비방과 소송전에 정면돌파 시사

최근 일부 인사들이 한기총에 대해 비방과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길자연 대표회장이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길자연 대표회장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28일 실행위에서 이미 정상적으로 통과된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실행위를 개최해 회원과 단 및 단체들의 선의를 물었다 ▲최근 행정보류된 4개 교단과 신규 가입된 3개 교단 및 1개 단체들의 회원권 부여 문제의 경우, 12월 15일 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길자연 대표회장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참석해 높은 열기를 보였다.

다시 한 번 표결에 부친 결과 대다수의 여론이 정관 등의 개정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개정을 무효화하고, 행정보류된 4개 교단과 신규 가입된 교단-단체들도 경우에 따라 회원권을 다시 부여하거나 유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길 대표회장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최근 일부 인사들에 의해 한기총에 대한 비방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는 대다수는 자신을 비롯한 한기총 지도부의 노선을 지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길 대표회장은 이날 “한국교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위상을 훼손하는, 근거 없는 비방과 의미 없는 소송전은 중단돼야 한다”며 “한기총 해체의 도를 가진 배후 인물이 몇몇 사람들을 사주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더 이상 뒤에 숨어서 음해하며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게 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임원회와 실행위원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 발언하며 대의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기총의 모든 행정과 사업은 회원교단들과 단체들의 중지를 모아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도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에 의한 중상모략이 계속되고 있음에 통탄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본인은 한국교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위와 같이 결단하고 한기총 회원교단과 단체들의 중론을 다시 한 번 묻고자 하오니, 이제 모두가 비방과 소송을 중단하고 화합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하루 빨리 한기총이 소모전을 멈추고 정상화되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북한 인권, 재개발 지역 교회 등 시급한 교계 현안들에 대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재철 목사와 질서확립대책위원들도 동석했다. 홍재철 목사는 자신의 공동회장직에 대해 법적 하자가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지금이라도 임원회에서 본인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사임하겠다”고 밝혔고, 질서위원 측은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월경인 태론’ 이단·신성모독 규정에 절차적·신학적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도중에는 한기총 해체를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이 난입에 기물을 파손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성명서 전문〉

본인은 지난 2010년 9월 소속 교단인 합동총회 정기총회에서 731표 중 492표를 얻어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선출됐고, 같은 해 12월 21일 열린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는 186표 중 125표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이미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 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했던 본인도 이 직분을 감당하려 했던 것은 개인의 명예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기총을 배후하지 못한 소속 교단의 숙원을 풀고자 함이었던 동시에, 한국교회를 위해 다시 한 번 희생해 달라는 한기총 명예회장들의 강력한 권유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본인의 출마 전후로 하여 온갖 음해와 유언비어, 헐방과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급기야는 특히 자신들의 존재에 위협을 느낀 이들이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음해하고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 의해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되고 행정이 마비되는 한기총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자칫 한국교회에 누를 끼치게 될까 우려하여 되도록이면 맞서기보다 침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한기총의 위상을 저해하고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모략과 중상이 끊이지 않으니,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고 한기총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회원교단과 단체들의 결단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1. 한국교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위상을 훼손하는, 근거 없는 비방과 의미 없는 소송전은 중단돼야 합니다.

CBS, 기독교보, 들스리신문, 뉴스앤조이 등 한기총 음해하는 언론들은 양자의 입장을 공정히 보도하지 않고, 일방적·편향적 보도로 왜곡된 기사를 양산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국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한국의 기독교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의 기사가 게재되면 안티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반기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곱씹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미 7월 7일 특별총회에서 수많은 총대들이 본인에 대한 재인준과 소송 취하 권고안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최귀수 목사와 남궁준 목사 등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사사건건 소송을 더 하겠다고 비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판사조차도 “신청인들이 한기총 특별총회 결과에 복종하든지, 한기총을 떠나든지 양자택일하라”고 했음을 이들은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귀수 목사의 경우 얼마 전 한기총 사태 합의 조건으로 1억을 요구했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기까지 했던 인물로, 이같은 사람이 과연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일설에 의하면 한기총 해체의 의도를 가진 배후 인물이 몇몇 사람들을 사주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더 이상 뒤에 숨어서 음해하며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게 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임원회와 실행위원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 발언하며 대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성기 목사도 몇몇 교계 인사들을 비방하여 한기총의 혼란을 조장하는 데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속 교단은 왜 이러한 일들을 제재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며 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실행위에서 최성규 목사, 엄신형 목사, 최귀수 목사, 김혜은 목사 등에게 회원권을 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나, 엄신형 목사의 경우 정상적으로 참석했고, 최성규 목사는 본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최귀수 목사와 김혜은 목사는 특별총회 결의에 따르지 않고 고소 취하를 하지 않아 총대로 부적절하니 교체해달라고 소속 교단에 사건의 두 차례 요청했습니다. 다른 교단들의 경우 총대를 교체했으나 두 교단만 교체하지 않았기에, 한기총에서는 이들 교단들에게 협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실행위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총서위원들도 다만 의지의 지시에 의해서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했을 뿐 도리를 벗어난 일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10월 26~27일 강원도에서의 원로 모임의 경우 일각에서는 원로들이 10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54명의 참석자 중 20명이 원로들이었습니다. 나머지 인원 중 10명은 한기총 관계자들이었고, 20여명은 각자 사비를 내고 자발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국고 지원금 중 남은 비용은 모두 반납했습니다. 오허려 다른 교단들이 불만을 표시할만큼 통합에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주도하여 실행위원회가 불법

이래도 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실행위에서 최성규 목사, 엄신형 목사, 최귀수 목사, 김혜은 목사 등에게 회원권을 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나, 엄신형 목사의 경우 정상적으로 참석했고, 최성규 목사는 본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최귀수 목사와 김혜은 목사는 특별총회 결의에 따르지 않고 고소 취하를 하지 않아 총대로 부적절하니 교체해달라고 소속 교단에 사건의 두 차례 요청했습니다. 다른 교단들의 경우 총대를 교체했으나 두 교단만 교체하지 않았기에, 한기총에서는 이들 교단들에게 협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실행위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총서위원들도 다만 의지의 지시에 의해서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했을 뿐 도리를 벗어난 일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10월 26~27일 강원도에서의 원로 모임의 경우 일각에서는 원로들이 10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54명의 참석자 중 20명이 원로들이었습니다. 나머지 인원 중 10명은 한기총 관계자들이었고, 20여명은 각자 사비를 내고 자발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국고 지원금 중 남은 비용은 모두 반납했습니다. 오허려 다른 교단들이 불만을 표시할만큼 통합에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주도하여 실행위원회가 불법

이래도 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이대위의 심의를 받지 않았고도 하나, 이대위의 심의는 참고사항일 뿐이며, 아직 이대위가 구성되지 않았기에 추후 심의를 받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성명 내용과 같이, 한기총의 모든 행정과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에 의한 중상모략이 계속되고 있음에 통탄하며, 본인은 이 모든 비방을 잠재우고자 15일 열린 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1) 10월 28일 실행위에서 이미 정상적으로 통과된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실행위를 개최해 회원교단 및 단체들의 선의를 물었습니다.

2) 최근 행정보류된 4개 교단과 신규 가입된 3개 교단 및 1개 단체들의 회원권 부여 문제의 경우, 12월 15일 임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본인은 한국교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위와 같이 결단하고 한기총 회원교단과 단체들의 중론을 다시 한 번 묻고자 하오니, 이제 모두가 비방과 소송을 중단하고 화합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빨리 한기총이 소모전을 멈추고 정상화되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북한 인권, 재개발 지역 교회 등 시급한 교계 현안들에 대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갈릴리신학대학 & 랭귀지스쿨
GALILEE SCHOOL OF THEOLOGY & LANGUAGE SCHOOL

목회학석사 (M.Div.), 신학석사 (S.T.M.)
목회학박사 (D.Min.), 신학박사 (S.T.D.)

SEVIS인가 대학, 자체 I-20발행
ESL 프로그램 (음성학적 영어학습방법론을 개발)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인디안 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일약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과부상,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 (213) 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음향 / 영상 / 조명 연말 세일



LASERVISION
www.laservisionworld.com

shure mx418/c / 18" 강대성 마이크 \$199.00	earth work Cardiod 강대성 마이크 FM500 / 19in \$499.00 FM720 / 27in \$499.00	shure Cardiod 무선 핀 마이크 WL 184 : 115 degree \$106.00 WL 185 : 130 degree \$107.00	shure ppx24/sm58/무선마이크 핸드 타임 세트 \$399.00	sennheiser 유선 마이크 e835 three pack \$229.95 e835 single Handheld mic \$83.00	Roland KC-350 4-Channel 120w Stereo Mixing Keyboard Amplifier \$499.00	countryman E6i Directional earset mic/ 무선 이어셋 마이크 \$449.00
Microboard CD/DVD Duplicator QD-DVD-125 \$519.00	Keyboard Instrument cable \$4.99 ea \$39.99 with 10ea	bose ds16f / 천장 스피커 \$79.00	superlux hd661 / 헤드셋 헤드폰 \$49.00	ebtech HE-2-XLR (HUM ELIMINATOR) (2 ch box w/XLR)필/노이즈 제거기 \$84.99	sabin fbx1020 FBX Feedback Extremators: 피드백 제거기 \$329.99	hosa cable MKV-025AU / 25ft 마이크 케이블 \$29.99
Sanyo PLC-XU4000 / 4000 Ansi 프로젝터 \$1,098.00	Benq SP-920P / 6000Ansi 프로젝터 \$2,999.00	Dalite Portable 100" Screen 90618 이용용 100인치 스크린 \$199.00	25ft VGA Cable / 프로젝터& 컴퓨터 케이블 \$15.00	MHP-20 / 프로젝터 마운트 \$47.00	Telex SM-2 Telex SM-2 - Personal Listening System - A (sets of 4 users) 동시통화기 세트(4인 기준) Call for Price	beringer f1220A Power Monitor/ 파워 모니터 스피커 Active Monitor, EQ and volume. 125W \$217.99
Music Stand / 보편대 \$34.99	whirwind Director / DI-BOX \$61.02	American DJ PAR CAN 56 Combo / 조명 파킹 풀보 키트 \$59.95	Numer MP-102 CD player \$199.00	Elation ELED DW PAR 56 / LED 조명 \$369.00	Elation DLED 36 Tribrick / LED 조명 \$499.00	Ushio 조명 램프 for Source4 & Opti Par HPL 120V-750WX \$23.00 HPL 120V-575WX \$23.00 HPL 120V-375WX \$23.00 HX601 115V-575WBW \$25.00
Yamaha DXPV V-Drum \$899.00	Yamaha S90XS Keyboard \$2,299.00	Yamaha MotifA7 76-key FSX action with initial and aftertouch \$2,999.00	Behringer XENYX X1204USB 12-Channel USB Mixer with Effect \$196.99	Behringer XENYX 1204 \$98.99	Edrol V-4 Video Mixer \$1174.95	Projector Lamp REPLACE Projector Lamp, Sanyo, Sony, Eki, Panasonic, etc... Call for Price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ori.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2011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축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a.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 Fax: 310-793-2297 / www.cohenuniversity.ac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 818-435-2441 / www.myccu.us

미 서부 침례신학교
 I-20 발급, 장학금 및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가능
 1월과 6월 2주간 집중 강의로 3년 내에 D.Min. 취득 가능
 GTU, UC Berkeley로 대학원 과정 수강 및 Ph.D. 수학 가능
 M.A. in Community Leadership는 평신도 지도자 프로그램



760 South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00-2592 / baptistbob@verison.net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

국제비전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신학.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3130 Wilshire Blvd #402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8-9800 / Fax: 213-384-7898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

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

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university.org

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

윌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어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윌클리프 같은 개혁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14631 Leffingwell Rd. Whitter, CA 90604
 Tel: 562-777-7078 / www.wyclifuniversity.net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i.org

PIEDMONT UNIVERSITY 피드몬트 대학교

성탄을 축하합니다!

대표총장: 강신권 박사
 Dr. Paul Kang, Th.D., Ph.D. / CEO



PU 한의과대학	PU 신학대학
PU 보육대학	PU 음악대학
PU 선교대학	PU ESL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 Tel. 323-777-5269 / www.piedmontuniversity.ac

7병을 100불에...

Citric Acid \$30/ea 1병은 2-3달분

매일의 80배, 레몬의 200배의 농도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구연산



노벨상 3회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주어 피로 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성분: 구연산 100%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음식물의 완전 흡수를 도우며 자연치유력에 또한 최대한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인디오텐신이라는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인슐린과 그 반대 역할을 하는 효소 간에 밸런스가 깨져 생기는데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뇨병을 신속히 호전되게 만든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히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발목 무릎,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유산이 체내에 축적되고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인체 내 젖산 등의 피로물질을 분해하여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며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높여준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며 면역능력을 증진시킨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강한 체질,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 복용 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을 예방하고 병원, 약 값이 절약됩니다.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신부전증 복용 2주 후 소변량이 1500cc까지 증가하게 됨.
★당 수치 220이 한 주 복용 후 110으로 떨어져 의사도 놀람.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았음.
★검버섯이 구연산 복용 후 한 달이 지나 없어지거나 약해짐.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손발이 저리고 마비증세가 있었는데 복용 한 주부터 사라짐.
★늘 서서 일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데 구연산이 해결해 줬음.
★어깨 결림과 루마티스 관절염이 복용 두 주부터 없어졌음.
★허벅지 깊이 갈라져 항생제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이틀만에...
★심한 당뇨에 구연산 먹고 저혈당도 경험해보고 당 조절이 됨.
★7년된 피부암이 석 주 동안 구연산만 먹고 새 살이 돌아났음.

100% 미국 야생 천종 산삼

산삼 가격 파괴 가격표

대	산삼 수령	뿌리당 무게	뿌리수/LB	가격/454g
	1호~2호 Mixed (60년~120년근)	1호:23-35그램	20-30뿌리	\$1,200/LB
		2호:15-22그램		
	3호~4호 Mixed (20년~60년근)	3호:9-14그램	33-60뿌리	\$900/LB
		4호:5-8그램		

(지난해의 가격에 비해 5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산삼 기획 상품 가격표

시행일: 2011년 9월 8일

가 격	무 게	뿌리 개수	산삼 수령	중전무게
\$200	90그램	15뿌리~20뿌리	평균 30년근	70그램
\$600	250그램	20뿌리~30뿌리	평균 50년근	200그램



\$200 / 소매가 \$3,000
70그램 90그램 / 평균 30년근 15~20뿌리

\$600 / 소매가 \$3,000
200그램 250그램 / 평균 50년근 20~30뿌리

山 蔘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60여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 업체

타 업체보다 2~3배 싼 가격

주정부 발행 진품 인증서 첨부된 100% 살아있는 야생 산삼입니다. 인삼, 홍삼이 안맞는 분들도 미국 산삼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산삼 복용법은 씹어서나 달여서 드시도록 상세 소책자를 드립니다.



(올림픽과 크렌쇼 북동쪽 코너 1층 상가건물)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A. 본 점 (213) 365-2100
O.C. 직영점 (562) 760-2359

월-금: 10am-7pm, 토: 11am-5pm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산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ch.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미찬양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집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갯스월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0: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수요일성경집회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www.gwachurch.org

빅토빌예수마음교회
 담임: 김성일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합세배(화-목) 오전 6:00
 성령공부(주일) 오후 1:30 한국어 학교(목) 오전 9:30
 15617 Burwood Road, Victorville, CA 92394
 T. (760) 220-3263, (760) 542-9366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담임: 윤선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2부예배 오후 1:15
 3부일민예배 오후 2:00 중교 일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을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제자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자녀기도회(화-목) 오후 7:00
 중 - 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청년 - 대학부 주일예배후
 4063 Ingraham St LA, CA 90005 (필서파크초등학교길)
 T. (213) 550-7377 / www.lahopecchurch.com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남가주광명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제자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성경공부: (화)오후 7:30,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더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령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중교등,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아(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뉴월드임마누엘교회
 담임: 김승철 목사, MARY KIM 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EM워십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1234 W.7th St. LA, CA 90017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당)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당열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 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아) 오전 9:45 중교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둘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오전) 1부 예배 9시, 2부 11시 금요성경(화-목): 오후 8:00
 중교등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청년토요일예배: 오후 6: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069 S. La Brea Ave. LA, CA 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미주비전교회
 담임: 이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45 영아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Akash 저녁 7:30
 중교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5:30(화-금), 6:00(토)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http://www.visioncc.org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 예배: 오전 7:30 4부 예배: 오후 1:00
 2부 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소중환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운터 4기 Crocker St.)
 2부예배(영아) 오전 7:00
 2부예배(영아)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 김한요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45, 토 6:00
 4부예배 오후 12:15 주일학교 오전 10:30
 5부예배 오후 2:00 오후 12:15, 2:00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860-5451 / www.ilovecpc.org

시온성중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씨니사이드교회
 담임: 조인수 목사
 1부 예배 오전 09:00 주일 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영아예배 오전 10시
 1183 S. Hoover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송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오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3부(영아) 오후 12:3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 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2:00
 3부 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www.kccroc.com

요셉선교회
 담임: 정상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2728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45-4090

월셔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4-4272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박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1101 Glen Avenu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류종길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오전 7:30(토)
 1818 S. Western Ave., suite 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2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교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화-목) 오전 5:3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우십일) 수요일예배 오후 7:45
 영도 12:30(만남)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LA 만나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수요일예배 오후 7:2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SAM care international
 대표: 박세록 장로
 '말씀권사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삼감의 사랑의 미사'
 www.samcare.org
 1309W.Valencia Dr. Unit #K,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성탄에 부치는 글



현순호 목사
에버그린한인교회

가 모순된 전통과 관습에 의해
서 매장되고 있는 약속들을 철
폐하라는 것이다. 모든 인류는
한 형제 자매이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연약한 사
람들을 잘 도와줄 책임이 있다
는 것이다.

또 다른 가르침은 누구를 만
나든지 사랑의 상대자로 대하라
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
을 때까지 자기의 이익을 추구
하게 되어 있으며 지식과 능력
이 많아질수록 그것들을 이용
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려는 본
성이 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는 오랜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동
지가 되는 험악한 세상이다. 이
런 세상에 오신 예수는 가능
한 자신의 욕심을 접고 남을 위한
이타주의자가 되라는 것이다.
그 본보기로 예수는 병들고 가
난하고 무식하고 소외된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친구가 되었다. 즉 내 욕심을 채
우려고 남을 이용하지 말고 반
대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는 나 자신이 되라는 것이다.

예수는 이 원리를 인간들에
게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만물
에 적용시켰다. 어느 날 길을 가
시던 그분은 쫓 한 포기를 보시
고도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굽
혀 꽃잎을 어루만지며 주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살았
던 솔로몬 왕의 옷보다 이 꽃이
더 아름답다”고 하셨다. 즉 사람
을 비롯해 모든 만물을 사람으
로 대하며 살도록 가르쳤다.

예수가 왔다 간지 2천여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사람의 진가가 매겨
지고 또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들을 악용하는 풍조가 더 심
해가기에 예수의 교훈이 더욱
그리워진다.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의 줄로 묶이는 성탄
절이 되기를 기도한다.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회

위대한 교회의 3 요소

위대한 비전

위대한 목사 리더

위대한 평신도 팔로워

1960년대 대한민국은 무척이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한국
의 1인당 국민총생산량은 대다수
의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변변한 자원이 없었던 한국은 무
역만이 유일한 생존수단이 되었기
에 수출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결
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잘사는 한
국을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경
제개발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마
음운동을 일으켜 농촌발전의 토대
를 놓으려 했습니다. 이로부터 40년
의 세월이 흘러 지난 12월 5일자로
한국은 무역 1조달러 고지를 달성
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9대 무역강
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인구비례로
환산해 치면 무역 1조달러는 세계
6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흔히 강국의 요건을 꼽자면 넓은
국토와 최소 1억 이상의 인구를 가
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캘리포니아 4분의 1에 해당하는 작
은 국토, 1억에 한참 미달되는 4천5
백만명의 인구를 가진 참 작은 나
라에 불과합니다. 이런 작은 나라 한
국이 무역강국의 반열에 도달한 것
입니다. 40여년 전만해도 감히 상상

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는 현실
화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한국의 발전의
공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
습니다. 비록 독재자라는 오점을 남
겼지만 그의 강력한 리더십, 그리
고 미래지향적인 추진력이 오늘의
한국을 위한 발판을 놓았다고들 합
니다.

그러나 박정희 스타일의 리더십
은 당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의 개발도상국 리더들에게도 상
존했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국민
들에게 꿈같은 비전을 제시하였고
독재를 통한 강력한 추진력으로 국
가의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이 제시된 비전을
완성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을 뿐인
니다.

이제는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
(리더)보다 지도자를 따르는 국민
들(팔로워)이 더 위대했기 때문입
니다. 아무리 천지개벽할 비전이나
계획이 리더로부터 제시된다 하더
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며 수행할 국
민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결코 그
비전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위대했습니다. 꿈
같은 비전을 현실감 있게 받아들였
고 지도자의 리더십에 순응하고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꿈은 공유될 때 현실화됩니다. 리
더 혼자만 꾸는 꿈은 실현불가능한
몽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꿈의 성
취를 위하여 함께 수고할 때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를 학습
고대합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위대
한 리더십이 있다면 만사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와 위대한
리더십은 지금도 바람처럼 나타났
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을 반복
하고 있습니다. 명멸하고 있다는 말
입니다. 그렇기에 위대한 지도자의
위대한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요인
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팔로워의 위대한 팔로워
십이 바로 그것입니다. 리더가 제시
한 비전을 수용할 줄 아는 태도, 리
더를 향한 무한 신뢰, 그리고 리더
가 보는 것을 함께 볼 줄 아는 통
찰력입니다.

위대한 교회의 3대요소가 있다
면 위대한 비전, 위대한 리더, 그리
고 위대한 팔로워입니다.

이 세가지가 함께 묶여질 때 하
남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위
대한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것입
니다. 리더인 목회자도 위대해야 하
지만 팔로워인 평신도들도 위대해
야 합니다.

쌍 열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화장을 하지 않은 순수한 얼굴
을 쌍열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민
낫이라는 말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기 쉽게 만들어진 신조어(新造
語)입니다. 쌍열이 예뻐야 진짜 미
인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가공할
만한 화장술의 힘과 뼈를 깎고 이를
질을 피부 속에 삽입하는 고도의 성
형술 덕분에 쌍열 찾기가 쉽지 않
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기형적인 얼굴
이나 불의의 사고로 불구가 된 분
들만 성형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는
좀 더 예뻐지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
들은 누구나 주저없이 감행하는 의
료상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많
은 병원에서 휴가철 특별 세일같은
성형수술 패키지를 판매하기도 합
니다. 이제는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코를 조금 높이고 낮추는 것은 성형
수술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적
어도 턱을 잘라 불이거나 얼굴과 가
슴 전체를 손질 때에야 비로소 그런
거창한 말을 사용합니다.

화장의 힘도 대단해서 “승장”같
이 못생긴 사람에게 화장 전문가가
달려 들어 잠깐동안 “치장”을 해 주
면 “환장”하게 예쁜 사람으로 거듭
납니다. 덕분에 요즘에는 많은 사람
들이 원래의 얼굴이 어땠는지 모
를 정도로 “변장”을 하고 삽니다. 몇

달 전, 어떤 여성 인기 배우가 텔레
비전에 나와서 자신이 양악수술(턱
수술)을 받고 전신 지방 흡입수술을
받았다고 시청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는 뉴스를 보았습니
다. 평소 청순가련형의 이미지로 국
민 여배우라는 찬사를 받았던 그녀
의 외모가 실재로는 “칼과 끌”로 만
들어진 성형인간이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묘한 배신감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병원은 근
처에도 가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감쪽같이 내용을 댄 것입니다. 순수
함과 솔직함이 때마침 시대를 살아
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배우들이
연극이나 드라마를 할 때 가면
을 썼습니다. 이 가면을 “페르소
나”(Persona)라고 불렀습니다. 우
리나라의 판소리처럼 탈을 쓰고 연
기를 했던 것입니다. 일단 이 페르
소나를 쓰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은 철저하게 뒤로 숨겨지게 됩
니다. 그리고 그 가면이 상징하는
인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아마
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
이 그렇게도 매력적이었나 봅니다.
이 페르소나(Persona)에서 “사람”
을 뜻하는 “Person”과 인격을 뜻하

는 “Personality”가 나왔습니다. 가
면을 두 개 가지고 있으면 이중인
격자가 되고, 여러 개 가지고 있으
면 다중인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병
든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으면 인격
장애자가 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하면 가면을 쓰느냐?”가 나를 결정
합니다. 그러나 잘 골라 써야 할 것
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페르소
나를 바꿔 씁니다. 조금 전까지 화
가 나서 주먹으로 책상을 치다가도
중요한 사람이 지나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방긋 웃습니
다. 접대용 얼굴과 생활 속의 얼굴
이 다르고, 사람들과 있을 때의 얼
굴과 혼자 있을 때의 얼굴이 다릅
니다. 얼굴이 일곱가지로 변한다는
칠면조(七面鳥)도 우리를 보면 단
번에 “형님”하면서 고개를 숙일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 쌍열을 그
리워 하는지도 모릅니다. 얼굴은 얼
이 담겨 있는 굴이라고 합니다. 얼
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 왔는지를
보여주는 인생 성적표라고 합니다.
오늘 거울 앞에서 가식으로 점철된
화장을 지우고 숨어 있는 “쌍열과
의 만남”을 가져 보십시오. 많은 생
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토마스맹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드,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718) 228 - 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자신 감추는 화장 지우고

그동안 잊어버린

자신의 참모습 돌아보길

가주한의사협회 송년의 밤

주 최 : 가주한의사협회 (AKAMAC)
일 시 : 2011년 12월 22일 (목) 6:00 pm (시간 엄수)
장 소 : Garden Suite Hotel (7가와 웨스턴 맥도널 옆)
문 의 : Tel. 213-382-4412

경 품 : 한국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전문 Entertainer MC, DJ
참가비 : 한의사 \$50 기부동반 \$90 일반 학생 \$50
 후원업체 \$ _____
2011년도 한의사 면허 합격자는 참가비 면제 - 협회로 先 연락 바람

E.H.B.안 관련자료

2010년에 미 연방의회에서 미국의 건강의료제도를 개혁할 Affordable Care Act (실질 의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료 보험의 혜택 속에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그 주된 변화 중 하나가 Essential Health Benefits (필수건강혜택)의 개발로서 이는 2014년부터 시작될 제도로 의료보험에 일련의 건강의료 서비스가 의무적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미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의료 서비스가 의무적으로 포함될지에 대해 논의 중인데 지금이야 말로 한의 침구 서비스가 의무적 건강의료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때입니다. 금번 가주 한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E.H.B.(Essential Health Benefits)안의 관철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현재 본 협회는 각 언론기관과 종교 및 일반 단체들과 연계하여 공조체계를 이룬 E.H.B.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행 중인 오만 명 서명운동에 저희 가주한의사 협회와 함께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방법

1. 가주한의사협회에서 제작한 E.H.B.안 서명서를 작성/제출
2. AAAOM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E.H.B.안 찬성 의사 표시 (http://aaaom.rallycongress.com)
3. 화면에 커다란 붉은 박스 내에 'Take Action' 이라 쓰여진 버튼을 누르세요.
4. 하단 박스에 편지 내용이 이미 작성돼 있습니다. 페이지 제일 밑에 자신의 우편번호(Zip Code)를 입력하는 난에 자신의 우편번호를 입력하고 붉은색 '첨부(submmit)' 버튼을 누릅니다.
5. 넘어간 페이지에서 자신의 법적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편지 미리보기 버튼(Preview Letter)을 누릅니다.
6. 이제 자신이 입력한 내용과 함께 AAAOM에서 미리 작성한 내용의 편지가 완성된 것입니다. 만약 잘못 입력한 내용이 있다면 편지글이 있는 박스 내 우측상단에 있는 편지수정 (Edit Letter)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7. 마지막으로 보내기(Send)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새벽강단 58] 저 사람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유 양 진
연약교회 목사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교보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강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날짜: 2011년 12월 9일
제목: 저 사람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본문: 눅18:18-23
설교: 유양진 목사

눅18:18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8:1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8:20 네가 계명을 아나니 금방 일어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8:21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18:22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18:23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에 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회학자가 보는 죄가 있고 율법학자가 보는 죄가 있습니다. 같은 죄라고 해도 평가는 다릅니다. 사람마다 죄에 대한 정의는 각기 성장 과정이나 모든 삶의 배경을 통해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죄를 죄로 보지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눈에 죄를 죄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려도 좋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목수일을 했습니다. 자기 종업원에게 월급을 주려고 자기 성경책에 그 돈을 넣어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월급을 넣어 놓은 성경책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다 뒤졌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교회 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누군가를 지목하며 그가 가져갔다고 하기도 하고 또 아무개 집사가 일찍 집에 갔는데 그가 가져갔다고 하는 등 교회 성도 전체가 도둑놈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점심 안 먹고 간 사람 등은 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번 더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았습다. 그런데 돈은 찾았으나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졌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이슈가 주어질 때 우리의 태도는 각양각색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만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를 죄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아닌, 죽을 직전에 있는 불쌍한 여인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죽을 직전에 떨고 있는 불쌍한 영혼인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이 죄인으로 보인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갈 길 이 멀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평가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알기 전에는 죄를 보고 죄를 평가하고 판단한 후 결론짓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김대두는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도끼를 들고 일가족을 죽이고 18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결국엔 그를 전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송을 부르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극악무도한 이들도 죄인으로 보이지 않고 그들도 구원 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선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선과 악의 중간지대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여기서 악의 쪽으로 가느냐, 선의 쪽으로 가느냐입니다. 선으로 향하면 하나님에게 이르고 악에 이르면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뿌리깊은 나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선한 사람 따로 없다. 선한 사람은 아직 악할만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사람이다.' 선인과

악인이 따로 없다는 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집단 학살(홀로코스트)을 주도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후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이가 증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자마자 울도해 버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히만이 괴물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하게 생겼는지, 어떻게 그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있는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선한 모습이 보이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다 하십시오. 나쁜 일을 당한다고 해 보십시오. 우리 금방 악마로 변하게 됩니다.

비록 내 삶은 악하다고 해도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선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난 징표입니다. 선행 자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이란 원본은 두 개의 단어로 나뉘었습니다. 아가투스와 칼로스입니다. 아가투스는 최상급보다 더 위의 개념입니다.

칼로스는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어떤 관리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묻습니다. 이 단어가 아가투스입니다.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율법학자가 칼로스란 단어를 썼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가투스란 단어를 써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물음에 주님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계명을 아무리 잘 지키다고 해도 선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주변의 국가를 점령한 이입니다. 돌맹이 하나로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가 크고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난 아이가 부모에게 안기듯 하나님에게 안기고 싶다고 합니다.

그 곳이 어디입니까? 진정 하나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신 선인 구원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아가투스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들이 내어놓는 것이 칼로스란 선입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가투스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결정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약한 자유, 어린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 달기가 내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오늘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악인으로 보입니까? 나쁘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그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극악무도합니까?

선한 이는 한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오뚝이 신앙

어렸을 때 오뚝이를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오뚝이는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던 대표적인 장난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뚝이는 넘어져도 "오뚝"하고 금방 일어나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오뚝이가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속 캐릭터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오뚝이를 보면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인생엔 굴곡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으면 다시 일어날 때

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으며, 슬퍼서 울 때가 있으면 행복해서 웃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초라해지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넘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어떤 충격을 받을 때 오뚝이처럼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충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넘어지는 정도도 훨씬 깊어집니다. 넘어질 때면 금방 회복하고자 노력해 보지만, 깊어진 각도만큼 또 여지없이 반대쪽으로 깊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나쁜 일도 겹쳐서 온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러 치이고 저러 치이는 오뚝이

같은 인생,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오뚝이 같은 인생. 그러나 아무 길게, 심하게 이리 저리 넘어져도 오뚝이는 항상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리 저리 넘어지다 결국은 곧게 설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무게 중심입니다. 아무리 오뚝이가 많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게 중심이 없으면 모양은 오뚝이처럼 생겨도 그것은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인생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게 중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

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반석이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짓음을 받고 의인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환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대저 의인은 일곱번 넘어질찌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의인도 넘어지는게 현실임을 성서에서 기록한 점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오뚜기



안 정 섭 목사
덴버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습니다. 물론 넘어져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반대편으로 또 넘어지고, 또 반대편으로 넘어지고 하면서 한동안 괴롭고 힘들겠지만, 반드시 곧게 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니, 무게 중심되신 예수님 위에 굳게 터를 잡고 의지하며 당당하게 살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함으로, 고통과 환난이 오히려 신앙의 도약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넘어질 때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신앙의 삶입니다. 일곱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 바로 성도의 신앙입니다. 성도에겐 예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수와 잘못으로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게 될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11번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사오니,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장 소 : 중앙양로 병원
- 12월 17일(토) 오전10시
-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3등 3명에게는 각각 30불 상당의 물품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협 찬 필그림 오케스트라, 뱀벤장로교회,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 초교회, 마동환번호사그룹, 백보한의원, Allstar, Precision, 재미남가주총회도모도민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705-0404 / Fax : 213-351-0955

LA사랑의교회가 온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담임목사 김기섭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주일에배안내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9시 50분, 3부 정오 12시, 청년대학부 오후 2시 22분 EM 오후 2시

사랑토요(한글)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20분

LASR공립대안고등학교 고등학교졸업장 / GED / 16-24세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400, LA, CA 90057 Tel 213.386.2233
www.LASarang.com (한인타운 6가와 La Fayette Park 코너, 500여대 동시주차가능)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 집·건물 경매 STOP!!! ★

긴급경매 NOT, TRO, QWR, BK 전문

- 최장기간 연장 "합법거주" 약속 퇴거명령번호, 연방법, 주법 의거할.
- 그외 형사상체, 마약소지및판매, 강도, 강간, 폭행, 배우자폭력, 음주운전...

"당대 최고의 변호사들이 변호합니다"

메리츠 법률그룹 / 이진우
18000 STUDEBAKER ROAD, #700, CERRITOS, CA 90703
TEL: 888-210-1238 / FAX: 888-210-1239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2월 18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 번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현재 숙성과정 학생모집 (웍스, 포셀린, 메탈, 모델, 의지)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독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적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편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라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모든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사과 판매다 각종 조립식 선반전문
New & Used Buy & Sell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Gondolas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금 샅니다

최고가 현금매입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카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텐튼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텐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A., CA 90006 (Western + 15th)

가나 플러밍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나무 뿌리로 자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싱크대, 욕조, 반기 등
노후된 파이프를 동 파이프 교체
새거나 타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각종 Faucets, 디스포저,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많은 고객께서 다시 찾는 플러밍입니다.

Tel. 213-220-4123

dish NETWORK AUTHORIZED RETAILER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 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www.knamedia.com
1.888.894.8949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sasafterschool.blogspot.com

민고 맡기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K~6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SAS Afterschool

Pick up, 건강한 식안과 함께
학교공부 준비를 100% 도와 드립니다.

213.785.2427

명 치과 SANG DON CHOI - D.D.S.

213.387.2325
711 S. Vermont Ave. #Suite 111, LA, CA90005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세일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방수·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출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결혼꽃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서부에서는 GKYM Vision Conference, 동부에서는 GKYM Fest

“GKYM 운동은 풀뿌리 선교 운동”

GKYM FEST 대회장 김혜택 목사(뉴욕총신교회) 인터뷰

서부 지역이 샌디에고에서 제4차 GKYM VISION CONFERENCE를 20일부터 23일까지 여는 가운데 이 대회 직후인 27일부터 30일까지는 동부 지역에서 GKYM Fest: Rochester11이 로체스터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GKYM Fest에는 김하중 통일부장관, YM 로렌 커닝햄 총재, 국제CCC 스티븐 더글라스 총재, 세계 무역센터협회(WTCA) 수석 부총재 이희돈 장로, 김경길 한동대 총장 등의 우수한 강사들이 참여한다.

최근 대회였던 지난 2009년에는 미주 청년들 중 500여 명이 단기선교사로, 또 50여 명이 장기선교사로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게 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1천여 명 이상의 장년기 선교를 결의하는 청년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KYM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대회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이번 대회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GKYM 대회 첫 행사는 2008년 캐나다 웨라톤 호텔에서 열렸고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참석해 선교와 헌신을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2009년은 뉴욕에서 개최됐는데 이 대회에서는 총 2천7백 명의 참가자 가운데 1천 명 이상의 청년들이 단기선교, 장기선교, 중보기도, 후원을 약속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중 500명이 단기선교, 50명이 장기선교를 결심한 것이다.

-한인 2세대들이 이민교회들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GKYM 대회는 매우 고무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특별히 청년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이유나 계기가 무엇인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한국

교회나 이민교회나 희망이 없다고 본다. 교회 안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자리나야 하는 것이고 함께 잘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목회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성령, 묵회, 선교, 이 네 가지 요소가 함께 총족해야 온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4가지 요소가 자동차의 4바퀴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게 될 때 교회 안에는 신앙갈등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

목회에 대한 모든 에너지가 선교 에너지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목회의 에너지로 선교를 해야 프로그램으로 구색을 맞추는 면 균형이 맞지 않게 된다. 목회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에너지를 선교에 투입하게 될 때 교회를 활기차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없어진다.

이렇게 될 때 이민교회의 특징인 성도들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된다. 목회는 속불꽃이라면 선교는 결별꽃이다.

-선교활동 중 미전도종족 선교와 같은 완전한 헌신적 선교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진정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는 직접 선교지로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때문에 총체적으로 성도를 훈련시켜서 미전도종족을 만나기 위한 선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선교지 후원이거나 선교사 파송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현재 전 세계에 30만 명이 선교사를 약속했다. 그중으로는 미전도종족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다 전할 수 없다. 수치상으로는 170만명 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교사 중 대도시에서 있는 이들도 있고 미전도종족에 가 있는 이들도 있다. 때문에 전적인 헌신을 깨우는 운동을 한인청년 스스로 추진해 나가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한국

다 선교한다고 한다. 선교를 안 하는 교회는 없다. 그러나 보다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적으로 선교를 담당하는 단체들도 있다. 교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서 가야 할 것인가. 또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라고 보는가.

미전도종족 전도나 실질적인 선교에 있어서 선교단체만으로는 그 역할을 모두 커버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선교단체는 인적 자원에 한계를 갖고 있다. 사실상 교회가 영적, 인적, 물질적 자원을 다 갖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교회가 선교운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깨닫고 고백하는데 CCC, YM 등 그들도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총신교회는 매년 예산의 1/3 가량을 선교에 쓰고 있다. 교회부흥에 더 주력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선교가 더욱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선교에 쏟고 있는 것이다.

나는 모든 성도가 선교사인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진정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선교를 위해 다음 세대를 길러야 한다.

이슬람의 선교라는 것이 무서울 정도다. 이란의 경우 한 시골 마을에서 자살 폭탄테러를 할 지원자를 모집했는데 수십명이 몰렸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교회는 어떠한가 돌아봐야 한다. 교회가 그런 면에서 총체적으로 선교하는 이들을 육성해 내는 것이 오늘날의 시급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민교회는 2세와 함께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EM을 위해 따로 기도하고 따로 보내지 않았다. 1세와 2세를 같이 양육하고 선교하도록 해야 1세와 2세 사이의 문제가 없어진다. 우리 2세들을 영적으로 키우고 선교적 마인드를 갖게 해서 1세들은 후원하도록 해야 한다.

-2세를 위해 위한 GKYM 운동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데 특별히 GKYM 운동을 위해 헌신하게 된 계기가 있는가.

보통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이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 진짜 제자로 세운 것이다. 차세대로 하여금 세계선교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민교회도 이민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선교의 무대로 적극 진출



GKYM Fest 대회장 김혜택 목사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깨워야 했다. 개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2세를 위해서 홍보하고 뛰어어야 한다.

GKYM은 차세대 운동이다. 이것을 위해 재정이 한 두푼 드는 수준이 아니라서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교회를 뛰어넘는 세계선교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실제로 2010년 로잔선교대회가 남아공에서 열렸는데 한국이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이라고 하지만 일주일동안 열리는 대회에서 한국인 스피커가 한 명도 없었다. 한국의 2세대들은 언어가 어렵다. 그러나 이민교회는 언어와 문화에 있어서 그 폭이 훨씬 더 넓은

장점이 있다. 이민교회 2세대들은 언어가 된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모시는 강사들은 로컬에서는 쉽게 초청할 수 없는 분들이다.

GKYM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모든 비전을 공유하고 선교에 대한 도전도 받아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또 GKYM 운동은 단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무브먼트로 하는 것이다. 이벤트와 무브먼트는 다르다. 그래서 스냅들이 다 뛰는 풀뿌리 같은 운동이다. 현재 실제적으로 집사들이 발로 뛰고 있다. 목회자들이 운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집사와 2세대들이 뛰고 있다.

-앞으로 GKYM 운동의 방향이나 전망에 대해 한 말씀 해 달라.

현재 미동부 대회, 시애틀 대회, 밴쿠버 대회 이 3개 대회가 해마다 돌아가고 있다. 현재 미주에서 시작되는 운동이 동유럽에서도 현재 요청이 오는 등 세계 각 이민교회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다. 때문에 GKYM

인터내셔널을 세워 전 세계 이민교회들에게 GKYM 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GKYM 운동은 한인뿐만 아니라 다민족을 품고 가야 한다. GKYM 운동은 밑에서부터 시작된 풀뿌리 운동이기 때문에 10년 안에 세계적인 운동으로 커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대원 기자

다음 세대 지도자를 키우는 지킴 대회 일주일 앞으로

LA한인침례교회에서 매일 200여명 모여 기도하며 준비 중

12월 20일부터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제4차 미주한인청년학생 선교대회(GKYM VISION CONFERENCE)의 열기가 뜨겁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 이 대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준비는 바로 기도다.

매일 아침 7시 LA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목사) 체육관에서 200여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기도로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매일 미전도 종족, 디아스포라, 교회부흥, 연합운동, 통일한국, 민족 복음화, 헌신과 차세대 복음화 운동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특히 월요일에는 전체 진행을 위해, 화요일에는 등록과 홍보, 재정, 낱씨, 수요일에는 프로그램, 교육, 찬양, 무대진행을 위해, 목요일에는 선교박람회, 방별 모임, 금요일에는 기도, 안건, 식사, 의료사역, 토요일에는 선교대회 이후를 위해,



지난해 열렸던 지킴 대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5백여명이 더 등록했다.

주일에는 나라와 교회 등 주제별로 이뤄지고 있다. 강사는 전 통일부 장관이고, <하나님의 대사>인 저자인 김하중 장 등등한 상태이며 계속해서 등록이

사, <내려놓음>의 저자 이영규 몽골 선교사, 미션 코리아의 한철호 선교사, 에스더 기도운동의 이용희 교수, 베델한인교회 손인식 목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영아권을 위해서는 뉴욕교회의 데이브 기븐스, <크레이지 러브>의 저자 프랜시스 찬 목사 등 쟁쟁한 목회자들이 참여한다.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환 목사(KCCC USA 디렉터)는 “이번 대회를 통해 내년에는 최소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여름 단기선교에 참여하길 바라는 데비”라고 밝혔다. 또 “미종족 선교에 선교사에 헌신하는 차세대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이 대회는 12월 20(화)-23(금)일까지 샌디에고 타운컨츄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관련 문의는 GKYM 사무실 213-389-5222로 하면 된다.

김대원 기자

Advertisement for iTalkBB mobile services. Features include: '위대한 할인' (Great Discount), 'Global Unlimited Plan' for \$14.99/month, 'Global Unlimited Plus Plan' for \$19.99/month, and '내리세요!' (Drop!) promotion for \$14.99/month. Contact: 1.800.872.2902. Website: www.Korea.iTalkBB.com.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SouthBayHyundai Super Store **S/B**

미주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푸엔테힐스 현대, 싸우스베이 현대로 오십시오.
최대규모, 최다 차량보유, 최신 장비보유, 최고의 서비스, 최저가격보장

2011년 마지막 재고 세일



블랙 FRIDAY를 놓치셨다면, 마지막 몇대 안 남은 2011년도 모델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으세요!

2011년 AZERA

2대 보유



2011년 EQUUS

4대 보유



2011년 VERACRUZ

2대 보유



이외에도 2012년도 최신형 모델을 가장 큰 현대 딜러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많은 재고를 가지고 편리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모실 것을 다짐합니다.

품질 보증된 중고차 최저 이자율 2.49%

다른 딜러나 은행에서 융자 거절 되신 분
일정의 비용만 내시면 100% 융자해드립니다. 문의: 제니 김

'09 AUDI A4	(158347A)	\$25,900
'09 HYUNDAI ACENT	(PSB305602)	\$11,000
'08 HYUNDAI ELANTRA	(375687A)	\$9,900
'10 HYUNDAI GENESIS	(PSB099541)	\$28,500
'11 HYUNDAI GENESIS COUP	(P052678)	\$25,990
'11 HYUNDAI SONATA	(P051692)	\$17,990
'10 KIA FORTE	(PSB218528)	\$12,900
'01 MBZ S CLASS	(041808A)	\$10,900
'09 NISSAN CUBE	(P080274A)	\$13,900
'07 NISSAN QUEST	(252252A)	\$13,600
'09 TOYOTA CAMRY	(PSB098560)	\$14,900
'10 TOYOTA COROLLA	(P382033)	\$12,990

'05 BMW 3 SERIES	(BW77656)	\$14,300
'10 CHRYSLER TOWN&COUNTRY	(B351286)	\$19,800
'09 FORD FOCUS	(B252470)	\$14,300
'03 HYUNDAI ELANTRA	(B095484)	\$14,300
'10 HYUNDAI SONATA	(BP594207)	\$15,700
'06 KIA RIO	(B060987)	\$8,400
'06 LEXUS GS430	(042922A)	\$24,699
'08 NISSAN ALTIMA	(118594A)	\$15,600
'09 SICON XD	(B037153)	\$15,399
'08 TOYOTA CAMRY	(399803A)	\$12,000
'04 TOYOTA SEQUOIA	(034181A)	\$10,500
'10 TOYOTA YARIS	(B320052)	\$13,599

상기 모든 모델은 어느 딜러보다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재고를 보유한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품위있고, 쾌적한 넓은 매장에서 친절한 각국의 세일즈맨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진심으로 만족하실 것입니다.

한인타운에서 20분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PH 푸엔테힐스 현대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WWW.PHHYUNDAI.COM
888.212.6431

세일즈 시간

- ▶ 월-토 9:00am ~ 9:00pm
- ▶ 일 10:00am ~ 8:00pm

서비스 시간

- ▶ 월-금 7:30am ~ 6:00pm
- ▶ 토 8:00am ~ 2:00pm

직원 모집 한국인 상담 제니 김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S/B 싸우스베이 현대
20433 Hawthorne Blvd. Torrance, CA 90503
WWW.SBHYUNDAI.COM
888.531.0890

이러서 제출 michaelkim@phhyundai.com

FREE CAR WASH

\$27.95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mazda 푸엔테힐스 마즈다

www.mazdaofpuentehills.com

New 2011 MAZDA 2 VIN:130393
MSRP \$14,975
MPH Discount* \$2,477
Mazda Loyalty Rebate** \$500



New 2011 MAZDA 3 VIN:496799
MSRP \$19,745
MPH Discount* \$3,247
Mazda Loyalty Rebate** \$500



New 2011 MAZDA CX7 VIN:387971
MSRP \$22,785
MPH Discount* \$4,287
Mazda Loyalty Rebate** \$500



2011년 마무리재고 총정리 세일

SPECIAL RATE 0%

*Dealer participation in lieu of 0% APR Financing.
**Must have Mazda currently registered at same address



한국인 상담 제니 김
1-888-536-0576



Sales Representative
조성국

New 2011 MAZDA CX9 VIN:326585
MSRP \$30,420
MPH Discount* \$5,625
Mazda Loyalty Rebate** \$500



New 2011 MAZDA Miatas VIN:215474
MSRP \$29,655
MPH Discount* \$5,157
Mazda Loyalty Rebate** \$500



17723 E.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최상의 가격
최상의 서비스**